

연수국

- 대만, 싱가포르

연수기간

- 2007년 3월 17일 - 25일

연수목적

-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 및 학대받은 아동·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확립에 기여한다.
- 특히, 성학대 피해아동 치료 및 가해자 조치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학대 피해아동 전문그룹홈 설치 확대 및 임상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 간의 Network 강화에 기여한다.

기관방문일정

I. 대 만

時間	3月19日 타이페이	비 고
11:00 -12:30	勵馨基金會蒲公英諮商中心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Dandelion Treatment Center	http://www.goh.org.tw/chinese/about/servdand1.asp 住所：台北市羅斯福路二段75號7樓 電話番号：886-2-2362-2400 擔當：Ms Lisa Pai(Director), Ms. Dung(supervisor)
13:30 -14:30	1.台灣世界展望會113全國婦 幼保護專線 Worldvision Taiwan, Hot Line 113	http://www.worldvision.org.tw/work/page1-1.htm http://www.happykids.org.tw/happykids/hlc.asp 住所：台北縣新店市北新路三段200號12樓 電話番号：886-2-8912-7339 擔當：Mr. Torbors Chuan(Director of Social Work Dept) Ms. Hsiao Wen Lin(Manager of 113 Hotline) Ms Paulin Soong(Manager of Risk Center)
14:30 -15:30	2.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Child and Juvenile Adoption Information Cente	http://www.adoptinfo.org.tw/EN/AboutUs.aspx 住所：台北縣新店市北新路三段200號12樓 電話番号：886-2-8912-7368 擔當：
15:30 -16:30	3.內政部家庭暴力及性侵害防 治委員會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Prevention Committee,Ministry of Interiro	http://www.moi.gov.tw/violence/e_index.asp 住所：台北縣新店市北新路三段200號12樓 電話番号：886-2-8912-7331 擔當：Ms Tsai-Jung Kuo(Section Chief)
	3月20日 미아올리	비 고
09:30 -12:00	Taiwan Miaoli District Court	http://mld.judicial.gov.tw/big5/service/index.asp?cid=32 住所：：苗栗市中正路1149號 電話番号：886-37-33-0083 擔當：Mr. Jeong-Duen Tsai(Chief Judge) Ms Shew Fen Chang(Division-Chief Judge) Ms Lee Peng Lee(Judge)
14:00 -17:00	財團法人台灣兒童暨家庭扶助 基金會苗栗家庭扶助中心宜保 學園 TAIWAN FUND Children and Families - Miaoli	http://www.ccf.org.tw/42/index.htm 住所：苗栗縣竹南鎮竹興里博愛街518號 電話番号：886-37-46-1234 擔當：Mr. Stephen Hsieh / Superintendent, Miaoli Family Helper Project Chinese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 Taiwan Ms. Feng Ching Tang / Supervisor, Miaoli Family Helper Project Chinese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 Taiwan

II. 싱가포르

時間	3月22日 싱가포르	비 고
09:30 -13:00	Singapore Children's Society	http://www.childrensociety.org.sg 주소 : Blk 91 Henderson Road #01-112 Singapore 150091 TEL : 6276 5077 담당 : Ms Bee Joo Tan / Head of Bukit Merah Center, Singapore Children's Society Mdm Christina Appadoo Nehru /Senior social worker of Bukit Merah Center, Singapore Children's Society Ms Mabel Wong / Programme Officer Asia-Pacific Child Helpline International
3月23日 싱가포르		비 고
09:30 -16:00 (표참조)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	http://www.mcys.gov.sg 주소 : at Centre for Promoting Alternative to Violence(PAVe) Blk 211 Ang Mo Kio Ave.3 #01-1446 Singapore 560211 담당 : Ms Marie Yeo / Assistant Director, Rehabilitation, Protection and Residential Services Division of MCYS Ms Ang Siok Hui / Assistant Director /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Time	Topic	Speakers
9.30 - 10:45	Integrated Management of Family Violence in Singapore -The National Family Violence Networking System	Ms Poh Bee Kuang Manager Programme Development
10.45- 11.15	Tea Break	
11.15 - 13.00	Management of Child Abuse in Singapore	Ms Chee Lee Chin Senior Assistant Director Child Protection Service
13.00 - 14.00	Lunch	
14.00 - 14.15	Video-clip on Family Violence - A project by Jurong Family Violence Working Group	-
14.15 - 15.30	Treatment Group: Intervention for Sexually Abused Victims and Non-offending Parent	Ms Vivienne Ng Head Psychological Services Unit
15.30 - 16.00	Tea Break	
16.00- 17.00	Family Group Conference (FGC)	Ms Cyndi Soh Senior Counsellor Counselling and Intervention Unit
17.00- 17.30	A Tour of the Premises - PAVe	

연수 참가자 명단

	이름	기관	직급	성별
1	고은정	보건복지부	주사보	여
2	이호균	중앙	관장(연수단장)	여
3	최석현	중앙	상담원(연수실무)	남
4	김상두	한국암웨이	부장	남
5	박미라	한국암웨이	사원	여
6	윤재석	국민일보	논설위원	남
7	강민승	제주도	상담원	여
8	김경모	전북	관장	남
9	김경미	부산동부	상담원	여
10	김경희	충북	상담원	여
11	김미호	경기성남	상담원	여
12	김성찬	경기도	상담원	남
13	박미연	전남	상담원	여
14	박수봉	광주	상담원	남
15	박은영	강원도	상담원	여
16	윤여복	대전	상담원	여
17	이민영	경남	상담원	여
18	이혜선	경기북부	관장	여
19	임혜영	경기화성	상담원	여
20	조승원	강원동부	상담원	남
21	최용배	서울	사회복지 주사보	남
22	최윤옥	대구	상담원	여

대 만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Dandelion Treatment Center	3/19
-----	---------------------------------------------------------------------	------

I. 기관소개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는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불우한 소녀들과 젊은 여자들을 돕기 위해 1988년에 비영리, 비정부 단체로 설립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윤락업에 끌려갔던 소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센터의 복지 수혜자들 중 대다수는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즉 가정폭력을 받음과 동시에 윤락업으로 끌려갔다든지 등)

사회 복귀를 위한 중간 시설을 세움으로써 삶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 취업 훈련, 일시적인 안식처, 상담 등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임신이 가능한" 십대들에 대한 교육과 이민해 들어온 부부들을 위한 복지, 가정상담 등의 구제활동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는 정부의 정책 논의와 정보 수집 등에 공헌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와 아이들의 복지에 관련된 여러 법규 제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센터의 초점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들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는 소녀들과 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행, 윤락업 등에서 자유케 되는 미래를 꿈꾼다.

II. 발전단계

1. 1단계(1988-1992): 중간의 집 단계

- ▶ 1988년 미국선교사(高愛琪)에 의해 설립
- ▶ 부녀자 교육, 선도, 사회 적응 도움
- ▶ 윤락청소년 보호단계로서 중간의 집(그룹홈) 운영

2. 2단계(1992-1995): 반윤락운동 단계

- ▶ 미성년의 매춘, 매매, 성행위 선도의 목적
- ▶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성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성인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계몽 및 선도
- ▶ 홍등가 주변에서 사회의 인식전환을 위한 공익캠페인, 걷기운동, 영화제작 등 실시

3. 3단계(1995~2000): 적극적 행동단계

- ▶ 미성년자 보호사업
- ▶ 다양한 캠페인 : 거리에서 손수레에 여자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캠페인(보호) / 편지 한통으로 한 소녀를 구해라 / 소녀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등
- ▶ 마스크트 제작(the Garden of Hope Doll) 및 성학대에방교재(내 몸은 내가 주인) 제작 (1997년)
- ▶ 생존자 회상기, 부모들이 성폭행 발생을 알고 대처하는 책 등 출판(1998년)
- ▶ 학교 방문 교육(연극) 실시, 또는 할로윈 축제의 일환으로 홍보행사 실시(2000년)

4. 4단계(2001-2010): 엠파워먼트 단계

- ▶ 보호 중인 소녀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① 커피샵 운영 : 소녀들이 스스로 운영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 자신도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함.
 - ② 정부의 적극적 지원 : 대만대통령이 성년식에 소녀들에게 화관을 씌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함.
- ▶ 3대 마스크트 제작(2004년), TV홍보(2005년)
- ▶ 2006년 현재 112명의 사회복지사가 1,418명 대상으로 사업(3개월간의 심리상담) 실시, 대상분포는 성인 73%, 청소년 20% 및 아동 13%이며, 주된 문제는 성폭력 59%, 미혼모 상담 4% 및 가정폭력 상담이 9%임.

III. Service Network

1. 상담서비스

“Dandelion Treatment Network”은 가정 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 특별한 상담요법을 가지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모래놀이를 이용해 학대 받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해냈다(로저스 모래놀이 치료학파). 이러한 서비스는 치료센터를 포함해 전화 상담과 학대 방지 교육 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쉼터, 상담, 합법적인 원조, 교육, 훈련, 그리고 일자리 주선 등을 한다. 장기와 단기 쉼터는 사회복귀를 앞둔 중간 시설로서 십대 소녀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기술도 가르쳐준다. “임신이 가능한” 젊은 소년들과 소녀들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학교로부터 추방당했거나 성적인 산업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성교육, 가족상담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미혼모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력이 없는 젊은 미혼모(리틀맘)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3. 여성과 가족 서비스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치료 및 편의시설,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타국에서 이민해 들어온 부부와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담, 쉼터, 의료 서비스, 법적 원조, 합법적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리서치와 공공의 지원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Dandelion Treatment Center는 공교육,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1>치료실



<사진2>교육모습

◎ 질문 & 답변 ◎

【질문 1】 커피숍을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성년식에 매년 대통령이 참여하는지?

☞ 기관에서 직접 운영함. 매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함.

【질문 2】 사업비를 모금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만큼 모금은 잘 되는지, 비기독교인의 모금 참여율은?

☞ 기독교를 내세우지 않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함. 주로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질문 3】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는지? 지원한다면 지원금과 자부담의 비율은?

☞ 50대50 정도. 사업이 있을 경우 정부에 사업비 신청. 정부에서 일반인들의 기부 장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모금을 지향함.

【질문 4】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전부 피해자인지? 혹시 이 사실이 손님들에게 알려져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음. 안전함.

【질문 5】 피해자들이 기관에 직접 찾아오는지?

☞ 성인들은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아동은 주로 정부기관을 통해 보내짐.

【질문 6】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과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의 수가 많은지? 아니면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이 지부를 만들어 대만 전체에서 일하고 있는지?

☞ 대만 전체는 잘 모르고 타이페이 시에는 4개정도의 기관이 있음.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의 지부는 없음.

【질문 7】 모금 및 홍보 전담부서가 있는지?

☞ 전담부서가 있음. 주로 대기업에 제안서를 제출함.

【질문 8】 직원의 자격기준은?

☞ 사회복지 전공자.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질문 9】 아동, 청소년 대상 놀이치료와 같은 성인대상 치료프로그램이 있는지?

☞ 주로 상담을 통해 치료함.

【질문 10】 가해자들이 기관에 찾아오는 경우는 없는지?

☞ 정부기관에서 발견하고 조사한 후 기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음.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은 치료 기관임.

대 만	Hot Line 113(World Vision)	3/19
-----	----------------------------	------

2001년 '가정폭력방지법' 통과와 함께 예전의 아동·부녀보호전용회선(080-0422110)과 성폭력방지보호전용회선(080-0000600)의 기능을 통합하여 전화번호의 간략화와 단일창구의 개설 등을 위하여 '113'으로 여성 및 아동보호전용회선으로 합병하고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초기에는 아동보호였으나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까지 포함되었다. 기능은 초기의 요보호아동의 신고 및 상담기능에 성인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도움을 구하는 방법과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1. 접수

- ▶ 사회복지사 32명
- ▶ 외국인 신고자 위한 통역 16명(5개국- 영어, 월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2. 서비스

- ▶ 24시간 113으로 신고 가능
- ▶ 전국 각 지역, 일반 또는 시외전화 모두 가능
- ▶ 주간에는 중화전신을 통해서 각 지역 기관(25개 縣·市 행정부처 내의 가정폭력성폭력방지센터)으로 연결, 각 지자체에서 연결 불가할 시에는 가능한 센터로 연결됨.

3. 113 센터 근무시간

- ▶ A 타임/ 7:30~15:30 (평일 4명, 주말 8명)
- ▶ B 타임/ 15:30~22:30 (평일, 주말 모두 8명)
- ▶ C 타임/ 22:30~익일 7:30 (평일, 주말 모두 6명)으로 나누어 근무
- ▶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전화 받을 수 있음.

4. 신고 후, 처리

- ▶ 전문 사회복지사가 교대 근무하면서 상담을 하여 원하는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 신고자가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 위급 상황 아닌 경우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림. 시에서 이를 확인하여 신고자를 보호함.
- ▶ 위급 상황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회복지사가 즉시 처리하도록 함.

5. 근무 상황

- ▶ A타임 : 7:20까지 출근, 회의(다음 B타임으로 인수인계)
- ▶ B타임 : 15:20까지 출근, 상담이 가장 많은 시간대. A 타임에게 인수인계 받고, 인터넷으로 기록, 통보.
 - 15~17시까지의 근무시간이라 신고가 적음. 그래서 안내 위주.
(컴퓨터 고장 문의도 안내해 줌)
 - 17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응급상황 가장 많아서 각 지자체에 연락하는 일을 함.

-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컴퓨터에 기록하여 보고, 처리.

- ▶ C타임 : 내부에서 협의하여 직원 당 1-2시간씩 휴식. 이 시간은 퇴근 후 시간이라 신고가 적고 안전, 보안에 주의함. 긴급 상황이 가끔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함. 새벽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음. A타임 근무를 위해 문을 열어줌.

6. 서비스 과정

신고접수 -> 통역 필요 여부 질문하여 적절히 연결해줌 -> 긴급 상황이면 즉시 시 경찰서로 신고,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전화상담(모두 녹음, 즉시 기록/정리) -> 일반적 상담은 정리, 저장함.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면 이를 정리하여 지자체 가정폭력상담소에 보고(113 신고내용은 모두 온라인상으로 저장하여 공유가능) ->필요한 서비스 제공처로 연계가 끝나면 접수를 끝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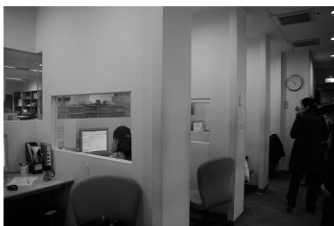
- ▶ 지자체로 접수된 건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
- ▶ 113센터는 내정부에서 위탁한 센터이므로 대만 내 모든 기관으로 연계됨
- ▶ 장난 전화는 올바른 역할을 안내함.

7. 2006년 상담 실적

- ▶ 유효전화: 전화가 와서 상담까지 이루어진 경우.(2월에는 명절이 있어 저조)
- ▶ 유효전화가 40% 넘어서면 아주 바쁨.
- ▶ 6월 시스템 변경 기간이 있어 혼선, 불안정했음. 현재는 시스템 교체 통해 안정.
- ▶ 유효전화량은 지속 상승 중. 10월 유효전화량 최고였음.
- ▶ 최근 5년 동안 유효전화량 지속 증가 추세.
- ▶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가장 많음. 주로 성인이 신고.
- ▶ 아동, 청소년 신고는 병원, 교사가 가장 많음.
- ▶ 아동청소년 성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 성폭력 전화량은 많지 않으나 점점 증가추세. 성추행은 전화문의 통한 상담이 많음.
- ▶ 아동 실종은 다른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신고 및 상담이 적음.
- ▶ 아동학대는 兒少保護 에 포함.

8. 2006년 유형별 건수

- ▶ 결혼, 이혼, 동거폭력/ 兒少保護 / 노인학대 / 기타학대/ 성희롱 등.
- ▶ 결혼, 이혼, 동거폭력 보다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많음. 아동은 자신에 대한 보호가 힘들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에 주력을 가함.
- ▶ 아동학대는 긴급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토록 함. 병원에서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많음.



<사진3>113센터 내부



<사진4>상담원

◎ 질문 & 답변 ◎

【질문 1】 신고 중 강압에 의해 전화가 끊기면 추적 가능한지?

☞ 신고 초기에 옆에 사람이 있는지, 장소, 안전 여부 물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주소를 먼저 물음. 안전하면 바로 상담함. 전화상에서 신고 요청을 받으면 113에서 대신 신고하는 것으로 함. 전화신고는 추적가능. 이는 비밀보장. 그러나 휴대폰 사용 신고는 추적 힘들. 휴대폰 전화는 경찰만이 주소 조회 가능. 위급한 경우 110(경찰)으로 전화하도록 함.

【질문 2】 113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가지는 않는가?

☞ 대부분 전화 상담하며 긴급 상황에서 타이페이현 내 신고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사회복지사에게로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기도 함. 이런 경우 거의 없음.

【질문 3】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접수 하면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하여 개입토록 하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모두 개입하는지?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모두 한 기관에서 모두 다룸.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일함.

【질문 4】 한국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개입까지 하며 이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는데, 신고와 서비스 제공이 분리된 대만에서는 통합 관리가 가능한가?

☞ 대만에서는 정부 위탁이므로 정부와 113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음. 현재는 서비스 제공은 입력이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 각 지방별 처리 방식이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음.

【질문 5】 상담원의 자격은?

☞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 3년 이상 근무하여야 수퍼바이저가 되며, 주임은 5년 이상 근무.

【질문 6】 아동학대 비율?

☞ 兒少保護 비율만의 통계를 보여주기 어렵고 兒少保護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내정부 아동국)에서 정확한 비율 알 수 있음.

【질문 7】 신고전화는 113 하나뿐인가?

☞ 110, 113이 운영 됨. 110에 신고 되면 경찰이 대부분 113에 신고하라고 함. 어떤 경우 경찰에서 113에 전화하여 처리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질문 8】 113에 대한 시민인식 정도는? 그 홍보는 어떻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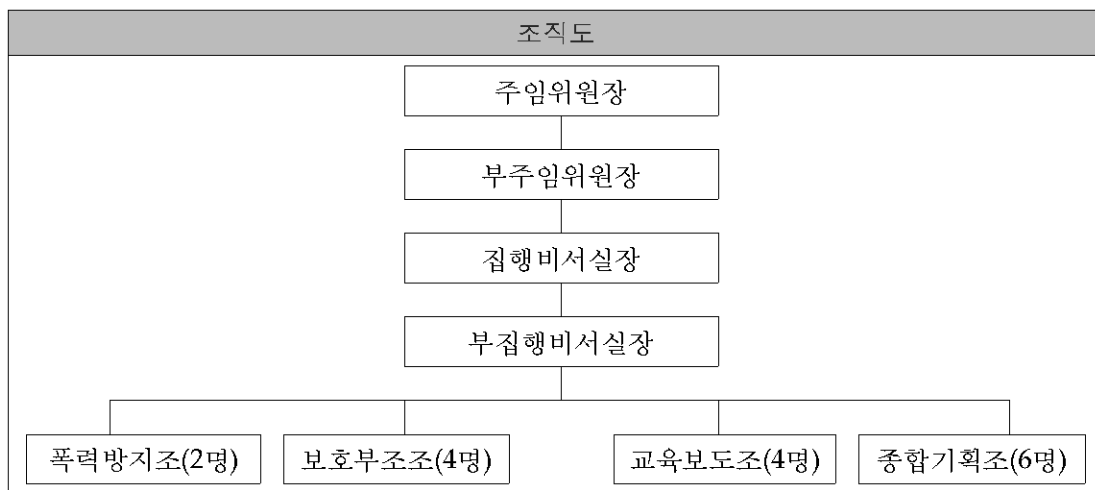
☞ 113 개설 5년 정도 되었고 학교는 대부분 알고 있음. 그러나 일반 시민 인식은 낮아서 지하철, 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있음.

대 만	가정폭력·성폭력예방위원회 (The Council for Control and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ex Violence)	3/19
-----	--------------------------------------------------------------------------------------------------------	------

- 중앙정부 내정국(Ministry of Interior, Republic of China)에서 관리함.
- 1997년 성폭력방지법이, 1998년 가정폭력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1997년 성폭력방지위원회를, 1999년 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각기 설치하였다가 2002년 두 개의 위원회를 현재의 위원회로 합병함.
- 동 위원회는 사법부, 경찰, 그리고 보건, 사회복지, 교육 및 언론관련 정부기관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합병되었으며, 각 시와 현의 조직 내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법 초안 작성과 정책개발, 관련 사업의 조정, 감독 및 평가, 사업 효과 증진, 시민교육 그리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과 가해자 처분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1. 조직

- ▶ 주임위원장(내정부 장관) / 부주임위원장(4명-내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보건부 차관 및 Judicial Yuan의 대표) / 위원(20명-위원장이 임명한 각 분야별 전문가 혹은 정부요인으로 구성)
- ▶ 1년에 4번(분기별) 회의 개최
- ▶ 위원장 아래 실무자들
 - 집행비서실장
 - 폭력방지조 2명(경찰과 연계, 경찰 1명 파견근무 중), 보호부조조 4명, 교육보도조 4명, 종합기획조 6명



2. 성폭행 범죄에 대한 사건 수

- ▶ 2001년 2,993건으로 매년 지속 증가했는데 2004년 사건제로화 운동으로 민간에서 신고율(-9.20%?)이 저조함. 실제 사건발생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
- ▶ 위원회에 성폭행 통보된 사건은 실제 이증신고가 많아 통보 건수가 많게 나온 것임.

3. 가정폭력 건수

- ▶ 2001년 34,348건에서 매년 증가, 2005년 거의 2배임.

4. 관련 법률

- ▶ 성추행방지법 1997년 제정, 2006년 개정
: 가해자 교육
- ▶ 가정폭력방지법 1998년 제정, 2007년 개정
: 경찰기관에서 보호령을 내려서 처리함. 가정폭력자료를 관리하는 기관 따로 있음.
- ▶ 성희롱방지법 2005년 제정, 2006년 시행

5. 전국 가정폭력, 성폭행 방지 사업 안내

- ▶ 내정부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현, 시 25개에 기관, 기타 병원, 보건, 경찰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
- ▶ 사업 초기에는 각 현, 시 25개 기관에 담당 직원 1명씩 배치.
- ▶ 10년간 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현재 각 현, 시에 278명의 직원, 보조 인력 459명.
- ▶ 2007년~2008년에 인력 증원 예정.

6. 피해자 보호

- ▶ 113에서 24시간 신고 접수
- ▶ 외국인을 위한 5개국 언어 통역 서비스
- ▶ 피해자 긴급 구조 시에는 관련 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 치료, 상담.
- ▶ 경찰, 병원 등은 가정폭력, 성폭력을 인지한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 성폭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고, 재판 심문에도 응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례만 진술토록 제도 마련.
- ▶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대질심문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을 법률에 포함시킴.
- ▶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발 및 보호요청 가능. (접근금지, 양육권 획득)
- ▶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18개의 지방 정부 내 17개의 가정폭력서비스센터 마련. 17개의 서비스 센터는 모두 민간에 위탁 운영 중.
- ▶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사회복지사의 동행 하에 그 자녀와 면회가능.
- ▶ 가정폭력에 대한 수첩을 정부에서 제작, 학교에 배포하여 학생들 지도에 참고하도록 함.
- ▶ 성희롱사건에서 피해, 가해자 합의 시에도 개입.

7. 가해자에 대한 개입

-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자료 마련
- ▶ 성폭행가해자에 대한 이웃의 감독, 선도, 지도가 이루어짐.
- ▶ 성폭행가해자는 주 1회 경찰에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 있음.
-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를 법원에 요청하면 감정 분야에서 검사하여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법원에서는 이를 사전 검토 후 처분내림.
- ▶ 정신치료, 심리치료, 인지치료, 약물복용자에 대한 치료 등이 이루어짐.
- ▶ 위험성은 위험 / 평범 2가지로 나누어짐.
- ▶ 0800-013-999는 남성을 위한 상담전화로, 남성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폭력 등을 일삼

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 ▶ 교육/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1학기에 4시간씩 교육과정에 포함.
- ▶ 성희롱방지법 제정 후로 각 회사에서 교육, 훈련 과정 시행해야 함.

8. 2007년 가정폭력, 성폭력 사업

- ▶ 2007년 3월 5일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 ▶ 중앙에서 현, 시에 총 6000만원의 지원금 지급(25개 지역) - 지방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중앙에서 이를 감안, 지원한 것임.
- ▶ 2007~8년에 150여명의 지방 인력 증원 예정.
- ▶ 2005~6년 지방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지방 정부 평가를 실시. 이를 반영 예정. 전문가를 활용하여 한 달 동안 각 기관을 방문, 업무 평가하였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올해부터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 지도, 감독함.
- ▶ 올해 7월부터는 113 신고는 1곳에서 받도록 통일할 예정임. 이를 통해 지방 사건은 지방의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즉시 서비스 받도록 할 것임.(?)
- ▶ 18개 지방 법원에 가정폭력서비스센터 모두 마련.(현재 17개)
- ▶ 시골, 변두리 지역 등 접근이 힘든 곳에 서비스 제공
- ▶ 사회복지사들도 전문 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별 업무를 나누고 교육/훈련 실시.
- ▶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보도 중 우수보도에 시상 예정.

9. 미래의 노력방향

- ▶ 법적 제도 강화
- ▶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홍보 예정



<사진5>현관에서

◎ 질문 & 답변 ◎

【질문 1】 한국은 가정폭력, 청소년, 아동학대 등 관할 정부 부서가 다름. 대만은 모두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 ☞ 대만은 내정부 내 아동국이 있는데, 중앙에서 접수하지 않고 지방에서 접수하여 중앙에 보고. 아동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아동국과 위원회에서 개입.
- ☞ 정부 업무와 위원회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 2】 대만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의 비율?

- ☞ 대만은 한국에 비해 많지 않음. 대만 인구 2천 3백만 중 30만명.

【질문 3】 가정폭력서비스센터의 역할?

- ☞ 법률적 상담. 법원에 가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사)

【질문 4】 113으로 신고하면 조사는 어디에서 주로 담당하는가?

- : 113에서 접수한 후 각 지방(현, 시)에 설치된 가정폭력·성폭력방지센터로 의뢰하여 조사, 서비스 실시.

대 만	아동청소년 입양 정보센터 (Child and Juvenile Adoption Information Center)	3/19
-----	--------------------------------------------------------------------------	------

○ 입양(收養)에 대한 업무 담당

1. 입양 유형

- ▶ 혈연 : 친인척 입양 / 재혼하여 부부가 된 사람이 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
 - ▶ 비혈연 : 독립입양(불임인 경우), 기관식 입양(정부나 기관을 통해 입양권을 얻어 입양)
 - ▶ 국제입양: 네델란드 등의 아동 입양 많음.(입양 절차 기간이 길고, 복잡)
- ⇒ 세 가지 입양 모두 법적으로 호적정리를 마쳐야 함.

2. 입양 방법

- ▶ 동사무소에서 호적 발부 -> 재산, 개인 정보 조사 -> 법원 제출하여 지방 사회부에 넘김 (3~4개월 소요) -> 검토 후 결정 -> 입양 결정 증명서를 받으면 호적 정리.

3. 대만의 해외 입양

- ▶ 불임, 질병, 나이가 많음, 미신 등에 기인
- ▶ 미혼모의 아기, 경제적 문제, 친인척 중 누군가가 외국에 살 경우 영주권 획득을 위한 입양, 원치 않은 성별의 아기일 경우.

4. 센터 설립 배경

- ▶ 호주에서 입양된 한 아동으로 인한 사건 때문에 2005년 9월 내정부가 아동복지연맹 (Child Welfare League Foundation)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요청

5. 센터 이용 목적

- ▶ 자신의 혈연을 찾기 위함(해외입양 아동이 대만에서 부모를 찾기 위함).
- ▶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장기 필요) : 혈연을 찾아 장기를 얻기 위한 환자.
- ▶ 입양 가정간의 교류 : 입양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대부분 입양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들 가정의 친밀과 가정간의 교류를 위해 지원

6. 센터의 서비스

- ▶ 입양 관련 정보 제공
- ▶ 친부모에 대한 자료, 정보 제공
- ▶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보기 원할 때 상담 및 지원
- ▶ 의료, 법률적 정보 제공 및 상담
- ▶ 입양된 아동이 만20세 이상이 되어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경우

7. 서비스 대상

- ▶ 입양 가정
- ▶ 국민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관심 촉구



<사진6>안내데스크



<사진7>상담실 내부

◎ 질문 & 답변 ◎

【질문 1】 해외와 국내 입양의 비율? 총 입양 건수?

- ☞ 해외, 국내 통계 별도로 없음. 미혼모들은 해외입양을 선호.
- ☞ 입양은 약 3,000명 정도.

【질문 2】 입양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 ☞ 현재는 없음. 일반 가정과 같음.

【질문 3】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는가?

- ☞ 타이페이현, 시에는 1년 3회 방문하여 관리함.

【질문 4】 위탁가정 시스템이 있는가?

- ☞ 기아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입양을 원하는 경우 상황이 되면 입양 전까지 원가정 보호하고, 원가정 보호가 힘들 경우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 미혼모의 자녀는 입양 전까지 가정에서 보호한 뒤, 입양 위탁모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음.

【질문 5】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부모의 친권박탈 후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가?

- ☞ 있음. 사회부에서 아동을 보호하여 위탁조치 하고 부모는 접근 불가. 가정폭력으로 자녀를 버릴 경우 법원에서 그 사유를 묻고 사회부에서 아동을 인수하여 보호조치.

【질문 6】 버려진 아동을 보호하는 장기 시설, 그룹홈 등의 수?

- ☞ 아동국에 문의 바람.

대 만	Miaoli District Court	3/20
-----	-----------------------	------

○ 대만의 아동관련 법체계

1989년에 통과된 소년복지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조치를 법률로 정했다. 당시, 주로 소년의 비행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 및 피학대아동의 수용과 지도를 제시하였으나 완전한 보호 절차가 규정되지는 않았다.

1993년에 국내아동복지법(12세 이하의 아동)이 개정, 통과되었다. 보호조치가 확대되어 처음으로 아동보호의 개입에 공적 권리가 부여되고 아동보호조치의 관련규정이 구체화되어 긴급호보, 신고책임 등이 포함되었다. 이 단계의 대만아동보호조치의 발전은 피학대아동 및 가해자를 돕고 학대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제 2단계의 예방의 과정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3년에는 행정, 입법 및 민간부분의 공동협력으로 '아동 및 소년복지법'을 통과시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의 아동보호네트워크는 완벽한 법률을 기반으로 대만의 아동보호조치를 '아동학대 예방대응'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3단계의 학대예방 대응책을 정착시켰다.

아동학대의 예방대응책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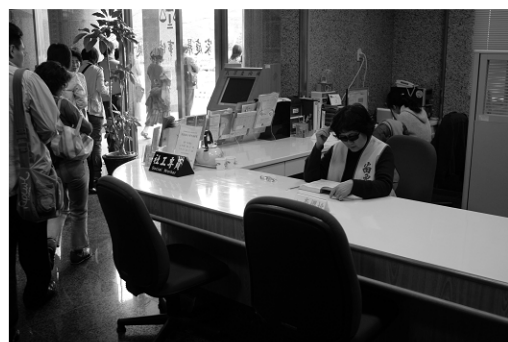
제 1단계 예방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책으로는 특별히 학대고위험가정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아동보호의 개념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제 2단계 예방의 목적은 피학대아동과 가해자를 지원함으로써 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3단계 예방의 목적은 피학대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로 치료, 사후지도를 통해 피학대아동의 사회에의 신뢰감, 소속감을 회복시킨다. 또한 가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양육지도를 하여 가족재결합과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 다른 형제가 학대받을 위험이 없도록 한다.



<사진8>법원 앞에서



<사진9>법원에 설치된 가정폭력서비스센터

◎ 질문 & 답변 ◎

【질문 1】 법원 내에서 치료적 개입(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는데 법원 내에 담당자(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 법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위탁하여 가정문제를 조정,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쌍방향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함. 건당 상담비를 지급받음. 사회복지사 외에도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은퇴 법조인, 타 분야 전문가들도 협조가 가능함.

【질문 2】 소년 및 가정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 동기

☞ CI가 법률적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 지방법원으로 위탁하여 CI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변호사 선임, 합의조정 등. 초기에는 보호명령만을 하였는데 효과성이 적었음.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아동보호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판단되어 현정부가 주도하여 법원 내에 소년·가정폭력 법무처를 설립하게 됨.

【질문 3】 가정 내 심각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또는 박탈 사례가 있는지, 가해부모에 대한 수강명령(교육 및 상담)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법에 근거하여

- 중한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이사를 명령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함. 경미한 경우 100m 접근금지(학교도 찾아갈 수 없음) 등

- 양쪽 부모가 모두 학대행위자일 경우 소년사회부에서 보호명령을 내리고 학대부모가 법원에서 교육을 받게 됨. 이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사회에서 가정위탁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 금주명령, 금연명령, 수강명령, 재판을 통한 처벌

【질문 4】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보호 할 때, 소년가정법원에서 판사 판결 하에 보호를 하는지, 소년사회부에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 분리보호 하는지?

☞ 학대의 위험성에 따라서 법원에서 보호령을 내림. 보호령 기간(최고 1년, 연장 1년) 동안 부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부에서 아동을 위탁보호 함. 이 후에도 부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양이 결정되기도 함.

◎ 질문 & 답변 ◎

【질문 5】 부모교육에 있어서 법원 내에서 실시하는지, 누가 교육하는지, 법적근거는?

☞ 학대부모의 위험성에 따라, 사회부, 위생부, 병원 등에서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 12, 24, 36시간 교육이 있음.

☞ 청소년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 보호처분 명령을 내림. 부모, 자녀가 함께 교육을 받음. 8~50시간 교육명령. 사회복지센터, 교사 등이 교육을 실시함.

☞ 부모 합의이혼의 경우 양육권에 대한 조정이 있음. 수시로 아동양육 상황에 대해 조사를 받고,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박탈당함.

☞ 사회복지사의 역할 : 가정문제 조정, 합의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음. 담당역할이 중요하고 광범위함.

☞ 가정폭력관련법이 제정될 때 미국, 일본을 많이 참고함. 초기에는 가해자 처분에 관련한 조항 없었음. 내정부에 요청하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원인의 대부분이 알코올 문제임. 따라서 법원에서는 금주명령을 많이 내림.

☞ 만약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졌을 때 학대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거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분이 내려짐.

【질문 6】 아동성폭력에 있어서 아동진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사건진행절차,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내용, 가해부모교육을 법원 내에서 실시하는지, 수탁기관을 선정·활용하는지, 수탁기관의 선정조건

☞ 아동성폭력의 경우 경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처리함. 가해자교육은 사회부에서 담당. 정신과 치료가 많음.

【질문 7】 한국법정과는 다른 법정분위기(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데, 대만정부의 독자적 디자인인지? 선진국 견학을 통한 디자인 도입인지?

☞ 가족적(따뜻한) 분위기일 때 선도의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되었음. 재판관, 보호관, 검찰관들의 의견 하에 디자인이 만들어짐. 각 지방법원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음.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법정에서 진행함.

【질문 8】 한국의 경우 아동·가정폭력사건을 피해당사자가 고소 또는 제3자가 고발할 때에 사건 진행(경찰 및 법원 개입)이 되는데, 대만의 경우 고소·고발이 없어도 법원 개입이 이루어지는지?

☞ 피해자가 우선 신고, 법원에 바로 신고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접수,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접수 내용에 따라 법원으로 송치됨. 사회부에도 접수할 수 있음.

법원 직접 접수 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여 경찰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대 만	TAIWAN FUND Children and Families - Miaoli	3/20
-----	-------------------------------------------------------------	------

I. 기관 및 사업소개

1. 연혁

- ▶ 1987. 7. 10. 사업 시작.
- ▶ 1989년 소년복지법 통과(만12세에서 18세미만 연령해당)
- ▶ 1993 수정 통과 - Taiwan Fund에서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 2003 법안 합병 - 18세 이하면 무조건 보호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복지법 제정 통과

2. 체계

- ▶ 매매, 계약을 통해 정부에 위탁 -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
 - ▶ 정부에서 위탁 - 지도비용 한 가정에 2025원-4186975원
 - ▶ 정부는 예산수립, 계획, 감독, 업무협조 -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음
- 법원에서 아동을 위탁하면 보고서를 올리고 아동의 수용여부를 평가결정하게 됨

3. 주요업무

- ▶ 일반대중에게 홍보,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을 예방
- ▶ 학대 받은 아동을 수용해 학대사건의 발생 예방 등

4. 업무진행

- ▶ 아동학대 발생 시 사회복지사와 정부기관 직원이 함께 자료를 수집함
- ▶ 위험한 아동학대인 경우 사회복지사는 바로 격리 보호함
- ▶ 데려온 피학대아동은 평가검토 후 조치 결정
- ▶ 어린 아이들은 위탁가정에 보내고 청소년들은 보호기관(그룹홈)에 보냄
- ▶ 긴급히 격리할 경우 72시간 내에 보고서 작성 - 조치결과 준비해야 3개월 보호조치 할 수 있음. 3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제출. 그 후 보고서 내용을 보고 보호여부를 평가 결정함.
- ▶ 만약 학대한 가정에 위험성 없어질 경우, 가정 방문하여 평가함
- ▶ 지역 아동이 아닐 경우 전학조치, 위탁가정에 보내거나 기관에서 보호함
- ▶ 정기적인 가정을 방문, 부모교육, 심리상담, 체육활동, 긴급구호, 의료활동 실시
- ▶ 집에 귀가할 경우 1년에 1회 조사받음
- ▶ 계속해서 학대 발생 시 장기간 위탁기관에 보호하거나 입양, 친인척에 보호조치
- ▶ 한 달에 한번 업무보고, 회의

5. 현황

- ▶ 아동학대case - 여러 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해 개입
- ▶ Miaoli지역 아동학대 현황 - 2006년 169건
- ▶ 9-11세 38건, 3-5세 36건, 6-8세 31건, 12-14세 30건의 순으로 발생
- ▶ 신고는 주로 학교에서 많음(2006년도 41건)

- ▶ 아동학대는 아버지가 54%, 어머니는 37% 차지
- ▶ 대만 전체통계에서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많음

6. 활동

- ▶ 작년1-12월 44사례 말음
- ▶ 강제적으로 기관에서 교육 실시 - 부모 거의 나오지 않음
- ▶ 부모, 자녀는 1년에 4번의 교육 받음
- ▶ 방학기간을 통해 그림, 연극 실시

7. 그룹홈

- ▶ 2005, 7. 운영시작
- ▶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아동, 가출아동 및 학대받은 남자 아동위주로 보호, 정원 24명
- ▶ 일시 위탁가정에 맡기기 어려워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보호(현재 14명 보호)
- ▶ 전문적 개입 필요 시 증상기간 수용함.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간 갈수도 있음.
- ▶ 24시간 위탁보호, 생활안전, 보호, 의료, 치료(신체, 마음의 상처 회복 목적)
- ▶ 학교, 직업, 인간관계 등 사회성 훈련을 실시함
- ▶ 2005년 12월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한 아동이 7명이며, 2006년 12월 최고 19명까지 보호했었음
- ▶ 특별한 종교 없음,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양함
- ▶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방학기간 중에 만들기, 도자기, 춤, 컴퓨터, 음악 등 가르치고 있음)

II. 가정위탁사업

1. 1970년 가정보호센터가 시초 → 1986년 현재의 모습으로 공식 활동 시작

2. 위탁(寄養)

- ▶ 위탁방법 : 일반위탁 - 의뢰, 보호위탁 - 강제
- ▶ 위탁가정에 대한 사항 파악 정확히 해야 함(종교, 경제상황 등)
- ▶ 부유한 가정은 청소년도 위탁보호 가능함
- ▶ 자매일 경우 가능하면 같은 가정으로 보냄

3. 위탁가정 선정 기준

- ▶ 30세 이상 65세 이하
- ▶ 결혼 2년 이상 고정수입 있는 가정
- ▶ 한부모 가정에서도 위탁보호 할 수 있음
- ▶ 결혼 후 이혼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모두 가능
- ▶ 자녀를 키운 경험이 없으면 거절
- ▶ 전문적인 분야 12년 이상, 사회복지사는 2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결혼하지 않았어도 자격 부여함

4. 위탁가정 모집 및 설명회

- ▶ 모집기간 : 3월에서 5월
- ▶ 모집방법 : 신문, 텔레비전을 통해 모집, 캠페인
- ▶ 센터 내방 설명회 : 위탁,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6. 위탁가정 심사 및 교육

- ▶ 6-7월에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 평가
- ▶ 1차 평가 후 의사, 변호사, 교수, 교육계 대표 등이 2차 평가
- ▶ 30시간 교육 : 합숙훈련, 단체활동 실시, 위탁 과정, 아동 키우는 방법 지도
- ▶ 회원이 될 경우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함(매년 1년에 30시간). 3개월에 한번씩 직업훈련도 받음.



<사진10>기관입구(연수팀 환영 현수막)



<사진11>현지 직원들과



<사진12>기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그룹홈



<사진13>위탁가정 부모님들

◎ 질문 & 답변 ◎

【질문 1】 CCF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 ☞ Hot Line 113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 대만에 총 23개소 CCF지부가 있음.
- ☞ 타이페이시를 제외하고 위탁가정은 1,300가정

【질문 2】 아동위탁 시 어려운 점?

- ☞ 가장 어려운 점은 신체장애자 처음 접촉 시 어려움, 의료기구 등

【질문 3】 위탁가정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있는지?

- ☞ 있음. 정상적 아이는 한 달에 대만돈 16,500원(한화 50만원), 신체장애자는 24,000원(한화 70만원 정도)
- ☞ 기관에서 작년 3가정에 천만원(한화 3억 정도) 정도 지원함.
- ☞ 작년에 60만원 받고 가정에 방문, 지도 함(훈련 교육 지도 시 정부에서 따로 지원)

【질문 4】 (실제 위탁가정 부모에게 질문)한국에서는 학대아동을 위탁가정에 의뢰할 경우 문제행동이 많다고 위탁가정에서 꺼리는데 대만에서는 어떤가 ?

- ☞ 14세 여자아이 위탁하고 있는데 학교가기 싫어하고 물건 훔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키우고 싶어 함.
- ☞ 자기 힘으로 키우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나 센터에서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함

【질문 5】 어떤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가고 어떤 아이는 이곳 센터 4층에 보호하는지? 양육권이나 후견권을 법원이 위탁가정에게 주는지...?

- ☞ 여기 위층의 아동은 청소년대상(11-18세미만), 위탁가정은 연령층이 낮은 아동을 보호함.
- ☞ 위탁가정에게 양육권은 주지 않음
- ☞ 청소년기의 반란기가 있기에 전문적인 개입의 필요가 있어 연령층을 구분함

【질문 6】 위탁가정의 기한?

- ☞ 기한은 2년. 2년 후에 거취 결정.

대만	아동학대 통계자료(2004-2005)
----	-----------------------------

I. 아동청소년 보호건수 - 피학대자 수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아 동	청소년
2000	6,059	4,093	1,966
2001	6,927	4,466	2,461
2002	6,902	4,278	2,624
2003	8,013	5,349	2,664
2004	7,837	5,796	2,041
2005	9,897	7,095	2,802

연 도	합 계	연령별(단위 : 명)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2000	6,059	567	825	1,126	1,575	1,966	
2001	6,927	667	1,044	1,240	1,515	2,461	
2002	6,902	686	945	1,204	1,443	2,624	
2003	8,013	812	1,187	1,620	1,730	2,664	
2004	7,837	1,151	1,035	1,524	1,816	1,280	761
2005	9,897	1,445	1,721	1,879	2,050	1,733	1,069

(자료제공 : 아동보호국)

II. 학대자 분석

1. 학대자 유형

연 도	가해자 유형(단위 : 명)						
	합 계	부모 (양부모)	양육자	친척	생활시설	동거자	기타
2004	6,977	5,321	494	303	6	197	656
2005	9,028	6,690	764	478	11	413	672

2. 학대자 학력

연 도	합 계	대학교 /전문대이상	고졸	중졸	초등학교 이하	기타
2004	6,977	478	1,462	2,254	768	2,015
2005	9,028	807	1,912	2,553	879	2,877

3. 가해자 연령

연 도	합 계	20세미만	21-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기 타
2004	6,977	362	1,127	2,493	1,716	305	147	827
2005	9,028	391	1,265	3,137	2,407	434	167	1,227

4. 학대원인

연 도	합 계	양육에 관한 무지	부부 관계의 파탄	빈곤	실업	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 장애	인격 장애	미신	피학대 경험	기 타
2004	8,873	2,994	1,819	796	709	1,125	333	228	40	156	673
2005	11,461	4,083	2,526	976	792	1,384	507	241	57	110	785

(자료제공 : 아동보호국)

싱가폴	Singapore Children's Society(SCS)	3/22
-----	------------------------------------------	------

I. 기관소개

1. 설립 - 1952년
2. 설립목적 및 미션 - 종교와 인종을 떠나 모든 어린이들, 특히 학대와 방임아동에게 안식과 행복을 줌
3. 비전 - 모든 아동 복지 기관의 리더 역할
4. 서비스(8개 센터가 제공하고 있음.)
 - ▶ 돌봄(CARE GIVING) : 가정이 제역할하지 못할 경우 돌봄(데이케어, 학대방임 아동 돌봄)
 - ▶ 예방(PREVENTIVE) : 문교부와 함께 진행. 만 7세부터 의무교육. 의무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문교부의 요청을 받아 상담. 톱클센터 포함.
 - ▶ 개발(DEVELOPMENTAL) : 어린이, 청소년(16세 이상)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드라마, 뮤직, 인형극, 마임 등)
 - ▶ 치료(remedial) : 문제 청소년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아이들, 청소년 감호소에 부모가 데려가면 법원에서 여기로 보내 줌. 청소년 상담, 부모상담 실시. 12주-16주
 - ▶ Community : 행복한 가족생활 육성 이순 센터 패밀리 워크샵.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 ▶ Public Education : 대중교육서비스, 왕따 경우 리서치 기관과 연결 문제의 원인과 현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유도함. 작년에 중학교에 프로그램 공급. 빠른 결과를 내기 어려움.
5. 프로젝트

[CABIN]

- ▶ 중학생(13세-16세)을 위한 프로그램
- ▶ 학교에 나가서 제공
- ▶ 15개 중학교
- ▶ 학교에 방 1개를 만들어서 방과 후 교실 운영.
- ▶ 감독 하에 학교에서 놀 수 있도록 함.
- ▶ 학생들과 함께 워크샵을 실시(성문제, 왕따, 스트레스 등 상담)
- ▶ 같이 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열수 있도록 함.
- ▶ 1994년 시작. 처음에서 컨테이너를 사용. 2002년부터는 학교 교실을 사용하고 있음.
- ▶ A meeting point for discovery and recovery(잠재력 개발과 회복)
- ▶ 드레곤보트 프로그램 등 야외 활동, 외부강사 초청하여 실시 : 리더쉽 향상, 지식 향상, 사회적 기술 개발, 위험에 처할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

- ▶ 1캐빈은 1명의 복지사 담당
- ▶ 아이들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 통계 : 14개 중학교 ⇒ 1학교 당 1/30이 방문하고 있음. 성공적이라고 생각

방문	
방문	22,832
방문자(학생)	4,966

talk shops	
프로그램 수	149
참석	3,643

[Vulnerable Witness Support Programme]

- ▶ VSP(vulnerable support person)의 역할
- ▶ 정부 가정법원 내 청소년 법원, 경찰과 협력한 프로그램 : 청소년 법원에서 요청하였음.
- ▶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증언하거나 범죄 당사자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한 관련 내용 설명하고 도와 줌. 가정이 요청해도 도와 줄 수 있음.
- ▶ 예를 들면 7-8살 아동의 경우 법인과 대면하지 않고 CCTV를 통해 보고, 사회복지사가 함께 들어가 도와 줌. 부모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음. 사회복지사는 케이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음. 사건이 종결되면 후에는 상담할 수 있음.
- ▶ 통계

년도	1998-02	2003	2004	2005	2006
사례수	115	27	13	15	21

- ▶ 유형
강간, 성추행, 상해, 아동학대

[Tinkle Friend]

- ▶ 1984년 개설된 전국 유일의 콜센터
- ▶ 초등학교 7-12세 아동을 돕고 있음.
- ▶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부모의 역할이 부재한 경우, 피학대아동 등을 돕고 있음.
- ▶ 무료전화
- ▶ 평일 낮 시간만 운영 9:30-11:30 am, 2:30-5:00PM
- ▶ 저녁에는 운영 안함.(가정에서 부모와 상담하도록 하기 위해)
- ▶ 3개 라인이 있음.
- ▶ 성인자원봉사자 교육 후 자원봉사 ⇒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사가 상담.
- ▶ 자원봉사자 활용

- How do volunteers help?

- ① 들어준다.
- ② 충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Volunteer Recruitment Structure(자원봉사자 채용방법)

- ① Recruitment: 웹사이트, 추천 등
- ② Interview: 18세 이상, 범죄 기록 없는 자
- ③ Training: 10간 교육, 이론수업, 6시간 실습

- 현재 23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함.

- Volunteer Management

- ① 평균 1년 2회 채용.
- ② 1년 2회 개발 트레이닝 실시.(2006년 경우 왕따와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대 요령)
- ③ 케이스컨퍼런스 월 2회.

▶ Awareness Efforts(홍보)

- 학교 조회 시간에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 전화 설명.
- 학교 알림판에 포스터 부착.
- 1년 3회 소식지 발간 및 배포
- 아동도서 출판 업체 연계(관련 내용 홍보)
- 친구, 부모, 학교 상담교사에 알림.

▶ Types of presenting issues(유형) & 통계

분 류	내 용	통 계
BCC	대화가 필요한 경우	50%
PR	왕따	18%
SCH	시험성적	13%
FLY	가족문제	8%
CL	축하할 일	2%
BGR	이성교제	1%
G	위안(애완동물 죽음, 가족의 죽음 등)	-
CA	아동학대	-
O	기타(건강, 정보, 성지식)	6%
ETF	상담전화에 대한 질문	2%

- 분류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상담하고 가정, 학교와 연계함.

▶ Measure Success(평가)

- 전화 건수(Actual calls): 상담시간, 피드백
- Opening hours: 정해진 시간에 상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줌.
- Awareness effort : 학교에 효과를 알아 봄
- Volunteer training : 성공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능력 측정

▶ 만족도 통계

- 만족: 75.18%
- 불만족: 0.36%

- 불응답: 24.26%(피드백 질문 전에 전화를 끊는 경우)

▶ Awareness effort

- BUZZ를 만족한다: 88.5%
- BUZZ를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된다.: 90.5%
- BUZZ를 보기 원한다: 85.7%
- BUZZ 총120개 초등학교 66개 학교에서 76,000명이 받아 봄.
- 공문 발송 후 보기를 원하는 학교가 66개임.
- 학교 조회를 허락한 학교는 50개 학교 63,880명.
- 주로 왕따, 교우관계 유지 방법에 대한 교육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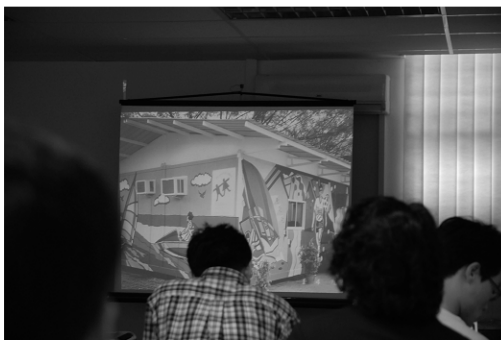
▶ 상담전화건수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담건수	5007	5127	4331	4447	4415

- 2002-3년에서 상담건수가 더 많음.
- 전화건수로 성패를 말하기는 어렵다. 전화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상담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오후반 오전반 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오전반 있음.
- 아이들에게 톱클프렌드가 있고 전화를 들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
- 전화건수는 적어졌지만 상담시간은 늘어났다.

▶ Recording of calls

- 웹시스템 구축(사무실에서만 접속 가능)
- 사용자마다 아이디를 부여 받음
- 녹취 시스템도 있음.
- 내용: 이름, 나이, 성, 인종, 종교, 학교 등 대화 내용으로 파악.



<사진14>CAVIN 사진



<사진15>이호균관장님과 현지직원들

◎ 질문 & 답변 ◎

【질문 1】 상담내용은 심각한데 아동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 때, 전화를 추적할 수 있는지?

☞ 전화추적은 하지 않고 학생이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상담 실시.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줌,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상담 실시.

【질문 2】 온라인 상담 요청이 있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 여기서는 온라인 상담은 없고 싱가포르 전체에도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상담은 없음.

【질문 3】 아동학대와 같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담사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 최근에 오빠에게 성학대를 받았다는 상담을 자원봉사자가 받아서 충분히 신뢰를 주고 사회복지사가 상담해서 MCYS(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 Sports)에 의뢰하고 MCYS에서 심리치료 실시. 경찰은 쉽게 부르지 않음.

【질문 4】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지?

☞ 정부에서는 전혀 받지 않음. 어떤 경우 약간 받는 곳도 있음. 자체 기금 조성함. 이곳은 기금 조성하는 부서가 있음. 여기서 월급과 프로그램비 지원. 개인기업, 은행 등에서 받음. 플랫폼이(?)를 통해 모금운동. NGO 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 패밀리서비스센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줌.

【질문 5】 **Vulnerable Witness Support Programme**에 사례의되는 어떻게 하는지?

☞ 정신연령이 만 16세 이하 어린이는 무조건 법원에서 연락이 옴. 진술녹화는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통해 진술함.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음.

【질문 6】 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자원봉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함. 상담 과정, 법정 과정에 대한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언제든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음. 자원봉사자 계약함. 1년에 1회 전체 자원봉사자 모임을 주최함.

【질문 7】 비행청소년 부모가 법원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이때 법원에서 처리 내용은?

☞ 매주 금요일 가정법원에서 오픈 데이가 있음. 그때 사회복지사가 뉴스센터에서 케이스별로 정리함. 아동과 부모를 상담함. 법원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임. 일반적인 경우는 상담을 진행함.

☞ 심각한 경우(beyond parents case): MCYS에서 조사원이 조사를 함. 찾아가서 인터뷰 실시.

싱가폴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	3/23
-----	----------------------------------------------------------------------	------

☞ 가정문제와 관련된 문제, 스포츠, 커뮤니티 관련 업무
 ☞ 가정의 복지에 관한 일(결손가정 및 일반가정 포함)
 ☞ 아동보호와 관련 50년 동안 일해오고 있음.

I. Integrated Management of Family Violence in Singapore

1. OUTLINE

- ▶ 가정폭력 네트워크
- ▶ 가정폭력 시스템
- ▶ 법적 지원

2. 가정폭력의 정의

- ▶ 가정의 구성원이 상해를 받은 상태. 자의적이든지 아니든 상해를 준 상태 포함
- ▶ 가정폭력은 여성법 안에 포함됨.

3. 가정 범위

- ▶ 가족구성은 모두 포함.
- ▶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 사람(부부, 아동, 장인장모, 형제 등)

4. 보호서비스(Protective Provisions)

- ▶ PPO(Personnel Protection Order)
 - 가해자, 피해자 둘 중에 한명이 신청할 수 있음.
 - 부부 간에도 신고할 수 있음.
 - 부모 중 한쪽 부모가 아동을 때린 경우 신고할 수 있음
(예, 남편이 자녀를 때리면 아내가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의 동의를 필요.
 - 신청 후 2주의 시간이 소요
- ▶ EO(Expedited Order)
 - 신청 후 바로 개입이 될 수 있음.
 - 2주 후에는 PPO로 개입함.
 - 피해당사자가 신청하면 동시에 법원에서 조치가 취해짐.
 -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피해자를 도와 신청할 수 있음.
- ▶ DEO(Domestic Exclusion Order)
 - 가해자를 방에서만 생활하게 하거나 집 밖으로 보냄.

▶ CGO(Counselling Order)

- 법원에서 필수적으로 가족이 카운슬링 프로그램 참여해야 함.
-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 2,000불 이하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실시.

5. 상해의 종류

- ▶ 도구를(무기, 칼 등) 을 사용하여 멍이 드는 경미한 경우.
- ▶ 상처가 심한 경우(골절, 실명 등 치명적인 상해), 20일 이상 진단.

6. 가정폭력 관리

- ▶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사회적 서비스(상담 등)
- ▶ 법적 절차 지원
- ▶ 건강지원(피해자 지원)
- ▶ 정부기관, 민간기관, 법원이 협력
- ▶ 가정폭력은 경찰과 협력(아동학대의 경우 조사 시 경찰이 도움을 줌.)

7. 가정폭력 대화 그룹

- ▶ 정책지향적, 전략적인 개입
- ▶ 보건복지부, 감옥, 교육 등과 협력
- ▶ 주관은 경찰과 MCYS에서 함

8. 네트워크 시스템

- ▶ 목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추구. 피해자에게 정보를 주고,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 ▶ 집중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

예를 들면 자녀가 상해를 입으면 의사에게 가고 의사는 기관에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병원에서는 경찰과 MCYS에 연락하게 되어 있음).

- 핫라인이 있음(Family Service Centre Helpline 1800-838-0100)

▶ Working Groups

- 6개 가정폭력 워킹그룹이 있음.
- 학교교육,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
- 경찰에 가정폭력을 의뢰하는 경우 MCYS도 연락할 것을 교육함.
- 법정, 경찰, 감옥, 학교, 병원(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민간단체 네트워킹.
- 경찰본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 경찰은 3개월에 한 번 함께 모여 논의 함.
- MCYS에서는 모든 단체가 모여 1년에 한번 세미나 실시.
- 올해 5월17일 열릴 예정.(주제: 가정폭력과 남자)
- 심리학자 초청 연설.
- 소식지 발행: *networks*

II. MCYS

1. 역할 : 가정폭력에 대한 관리,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 가정환경 변화, 가정폭력 감소
 - ▶ 네트워크 조성
 - ▶ 필수 상담프로그램 운영
 - ▶ 일반인 교육
 - ▶ 사회복지사 훈련

2. 필수 상담프로그램(Mandatory Counselling)
 - ▶ 법원에서 의뢰된 경우
 - ▶ 피해자 보호
 - ▶ 피해아동 보호
 - ▶ 스트레스, 화 억제 프로그램
 - ▶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프로그램
 - ▶ 매우 효과적임. 가해자의 70%가 만족. 단 1%만이 감옥에 갔음.

3. 훈련프로그램(Training)
 - ▶ 기본코스 : 법의 구조, 기본적인 기술
 - ▶ 중간단계 : 상담기술
 - ▶ 스페셜단계 : 세분화된 특성에 대한 훈련(어린이 증인과 함께 일하는 법, 그룹워킹 등)
 - ▶ 경찰에 대한 교육 : 절차, 책임, 의무, 기본적인 기술. 인터뷰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

4. 교육(Public Education)
 -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일반인 교육
 - ▶ 전시물, 리플렛 등 발행.
 - ▶ 민간단체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 웹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만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음.

5. 공동체 프로그램(Community Programmes)
 - ▶ Family service centres: 상담기관 지원, 교육
 - ▶ One-stop : PAVE와 TRANS Centre와 연계.
 - ▶ crisis shelters: 피해자 쉼터(거주기간 3개월).

◎ 질문 & 답변 ◎

【질문 1】 법원이 필수 상담명령을 내리는 과정?

☞ 법원명령→MCYS→민간단체(NGO)로 연결, 비용은 MCYS에서 지원

【질문 2】 패밀리센터의 수?

☞ 민간기관 36개. MCYS 4개 직영 총 40곳

III. Management of Child Abuse in Singapore

1. Guiding Principles

- ▶ 모든 어린이들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
- ▶ 피할 수 있는 상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 자녀로서의 권리와 부모로서의 권리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 ▶ 아동(자녀)의 안전과 복지가 모든 것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 다른 가정에서도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보호되어야 한다.

2. Definition of Child Abuse(아동학대의 정의)

-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힌 경우
- ▶ 공동체의 가치, 전문가의 견해를 조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Legislative Provisions(적용법)

- ▶ 아동청소년법, 형법 등

4.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Powers of Protector

- ▶ 지역별로 전문가(사회복지사)가 교육을 실시
(내용 : 상해가 있는 아동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etc.)
- ▶ 사회복지사 및 경찰은 학대가정을 방문할 권한이 있다. 경찰이 개입될 경우(심각한 사례)에는 수사가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 단독은 상담,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 가해자가 거부할 경우 경찰 개입
- ▶ 피학대아동은 안전을 위한 쉼터, 의료적 치료를 위해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다.
- ▶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

5. 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Legislative Provisions

- ▶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법
- ▶ 사건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보호한다(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정보제공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 학대가정의 부모 및 어린이는 학대발생원인 및 제공서비스를 사정(평가)하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사정과정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치료, 상담, 교육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신고자에 대한 보호

6. Family & Child Protection System

- ▶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잘 수행되어야 한다.
- ▶ 모든 기관들의 역할 중재를 한 기관이 할 수 없으므로,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법원, 경찰 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치원(보육시설), 학교, 이웃, 친구, NGO의 역할들이 중요하다.

7. Inter-Agency Management of Child Protection Cases

- ▶ 다체계적이고 제휴협력관계
- ▶ 보건복지부(MOH) : 진단, 정보수집, 치료 등, 의학진단서를 통한 상해의 정도(고의성 여부 포함)를 파악할 수 있다. 신체·심리적 상황을 진단, 치료할 수 있음.
- ▶ 경찰, MHA : 자세한 수사(조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여부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
- ▶ 학교, MOE(문교부) : 아동의 행동변화를 가장 쉽게, 빠르게 관찰·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지(개입)가 용이함. 가정내 학대발생여부 감시
- ▶ MCYS : 보호, 치료
- ▶ SSAs : Social Service Agencies. 모니터링

8. Child Protection Service

- ▶ Intake
 - 위험을 막는 예비과정
 - 아동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한 사정
 - 기본적인 정보 수집, 현재 상황(위험성) 및 앞으로서 위험성 발생여부
 - SSAs와 협력하여 가정환경, 학대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기도 함.
 - NGO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은 학대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일시적 / 지속적 여부 파악.
 - NGO의 역할을 잘 알고,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정은 NGO의 개입에 긍정적임.
 - NGO 모니터링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MCYS에서 개입함.

- ▶ Investigation
 -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의 분리여부를 결정

- ▶ Investigation Voluntary Supervision or Court-ordered

- ▶ Decision on Case
 - 수사시작 2주 후 아동학대 관련 보고를 하며, 이 때 Case conference를 통해 사례개입방향 결정(의사, 사회복지사 등 참여)
 - 사례종결 : 재발가능성이 낮거나 위험성이 제거되었을 때
 위험요소가 조금 남아있기는 하나 가해부모가 변화에 협력적일 때(사후관리)
 심각한 상해이거나 위험요소가 높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넘어감.

- ▶ What is a Care & Protection Order
 - Court order for:
 - ① 아동보호소(children's home) 보호(피학대아동,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 가출 등의 문제행동이 있어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아동 등 / 일시, 장기보호 / 20곳 / 만 3세 이상 ~ 16세 / 정원 10~120명 가량)
 - ② 적절한 어른(부모, 친척, 아동보호소 원장, 위탁부모(신생아~3세) 등)들에 의해 보호
 - ③ 치료, 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아동 및 가해부모)

- ▶ Supervision(감독)
- 학대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사례별 모임 실시)

9. Permanency Planning

- ▶ 아동복지 최우선.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 ▶ 종결사례에 대해서 1년 후 재조사를 하여 학대재발여부 확인. 학대재발 시 양육권 박탈 (아동과 부모 분리하여 아동은 입양을 시키기도 함).

10. Statistics(2000~2004)

- ▶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학대상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례에 한함.
- ▶ 성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 스스로 성학대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부에 의한 성학대인 경우 성학대를 받는다고 인지하지 못함. 따라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중요함.

IV. Treatment Group: Intervention for Sexually Abused Victims and Non-offending Parent

1. 심리치료 (총 13명이 반반씩 각 팀에서 일함)

- ▶ STAR TEAM-성적 학대로 정신적 공황 상태. 정신적 치료 서비스.
- ▶ FHS TEAM-청소년, 가족들을 위한 일반적 서비스
- ▶ 대상 및 프로그램
 - 6-12세 소년, 소녀
 - 소녀(12MODULES: 1MODULES-1주)
 - 친부 성학대 가해자에 의한 친모의 치료 필요 경우
 - 동성에 의해 성학대를 받은 남아
 - 성학대 가해자 프로그램
- ▶ STAGE ORIENTED TREATMENT OF TRAUMA
 - 심리적 안정
 - 감정 표현
 - 자존감 획득 및 앞으로의 방향 모색
- ▶ 치료 접근
 - 안정성
 -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 자아, 관계, 모든 것들이 있을 후 상담 종결
- ▶ 원칙
 - 개인 평준화(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가운데 그럴 수 있음을 알려줌)
 - 마음을 열고 아동이 마음을 오픈하기까지 권한을 주고 공동 협력.
 - 개인별 단계적 치료 접근
 - 아동, 성인을 돕고, 학대에 대한 도전, 재학대 환경 차단

2. 교육

- ▶ 성학대에 대한 사례, 가족에게 성학대 후유에 대한 이해 교육, 부정적 생각에 대한 관리, 죄의식, 상실감, 수치심, 자해, 부적절한 성적표현등의 관리
- ▶ 삶의 변화 :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한 모습 그려줌. 그 이외의 성적 관련 행동 경계선 그려줌.

1) PSYCHO-EDUCATION (정신적 교육)

- ▶ 성학대란
- ▶ 아동들이 노출되기 쉬운 이유
- ▶ 성학대 후유증
- ▶ 친부 성학대 경우 친모가 아동을 돕지 않은 경우
- ▶ 성학대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신념(사랑해서 성학대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줌)

2) OTHER PSYCHO-EDUCATION

- ▶ 성에 대한 긍정적 생각, 올바른 생각
- ▶ 건강한 성
- ▶ 성욕(외로움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돌파구로 섹스파트너를 수시로 바꿈)
- ▶ 경찰의 조사
- ▶ 법적 절차

3) 인식의 재구조

- ▶ 잘못 적용된 인식들: 친부의 처벌 시 아동의 죄책감,
- ▶ 역할극: angel and devil (handout 참조)
- ▶ 사고방식: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 잘못된 인식
- ▶ 화: 분노조절

4) 훈련(특히 감정표현 중요 : 친모에 대한 감정, 가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편지로 표출하는 수단을 줌)

- ▶ 긴장완화
- ▶ 자신보호
- ▶ 스트레스 감소
- ▶ 대인관계
- ▶ 자아정립
- ▶ 분노조절

5) Intervention techniques

- ▶ 자기 소개
- ▶ 교훈적 교육
- ▶ 표현 치료(미술치료: 자신의 감정표현된 것을 상자에 넣어 잠금)
- ▶ 그룹 토의
- ▶ 역할극

- ▶ fun day
- ▶ 상징적 육성: 자기 지각이 부족하기에 스스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격려함.
- ▶ 자신에게 편지쓰기: 제3자가 편지 읽어줌.

6) Observations and Learning points

- ▶ 역할극 유용
- ▶ 자해에 대한 자각, 인식 필요
- ▶ 가해자에 대한 감정 중요(친부를 사랑하지만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 필요 : 타인들의 질타)
- ▶ 죄의식(가정 해체)

3. 비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요 이유 : 비가해자가 지지적이었다면 피해아동의 감정(배신감, 격리)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1) Skills training / Empowerment 아동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 ▶ 역할극 : 비가해자와 아동과의 대화관계 개선
- ▶ 성학대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 ▶ 부모의 책임감,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교육

ex. 책임감 / 죄책감

: 비가해자(친모)가 이 상황에 대해 몰랐던 것이 잘못이 아닌 앞으로 대처가 중요함을 알림.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아동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했으니, 도와야겠다는 것.

* 비가해자의 경우 과거 성학대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아동에 대해 부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세션으로 들어감.

▶ 부모는 아동들 양육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동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각

▶ 특히, 동양인 부모 자녀는 성에 대해 대화부족, 이웃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아동이 도움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 환경.

* 예방도 중요하지만, 상황 발생 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질문 & 답변 ◎

【질문 1】 그룹 치료 시 사례 오픈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나?

- ☞ 그룹 치료 시 약속을 정함
- ☞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 하지 않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
- ☞ 자해아동은 격려함.(자해 자체가 다른 아동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질문 2】 그룹 숫자?

- ☞ 6-12명 정도, 아동 스스로 그룹에 참여하도록 함. 권유하거나 강제적이지 않음.

< 참 고 >

1. Social Service in Singapore

- ▶ 아동보호정책에 사회복지사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
- ▶ 부모들에 대한 역할 교육
- ▶ 효과적으로 가정을 돕기 위해 협력함.

2. FGC(Family Group Conference)

- ▶ 가족 스스로 권한 이행 자원 활용
- ▶ 전문가와 협력 구성, 공동의 책임감 형성

3. FGC를 통한 변화

- ▶ 위험에 대한 정보 습득
- ▶ 가족간의 신뢰(가족 역할 구성에 대해 도움)
- ▶ 아동의견 존중(FGC 회의 시 아동 참석하게 함)
- ▶ Ct와 전문가 사이에 힘의 형평성(가족이 힘을 가지고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 ▶ 책임감 나누기(사회복지사의 소진 감소)
- ▶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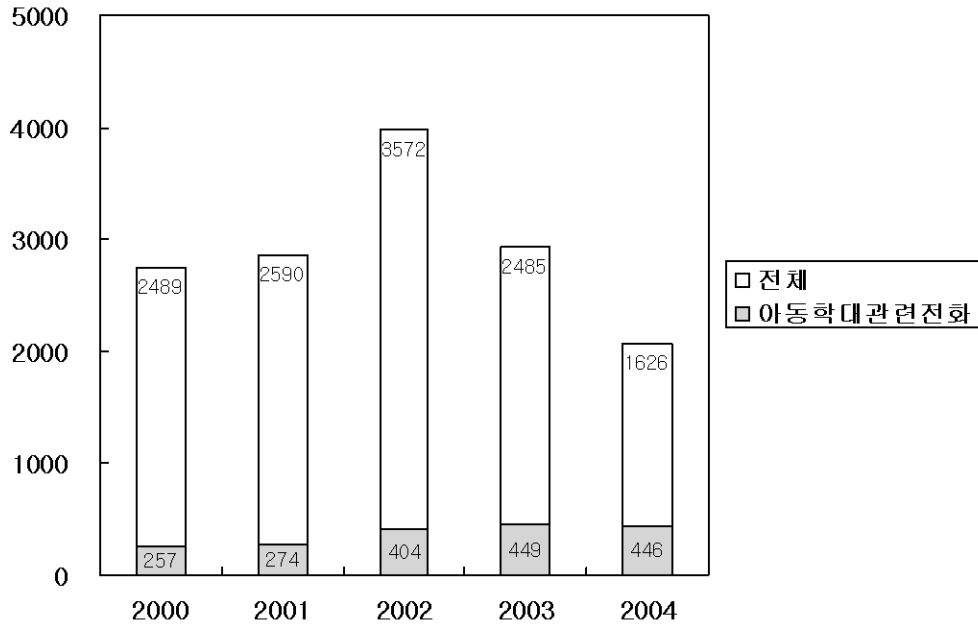
<사진16>상담실(P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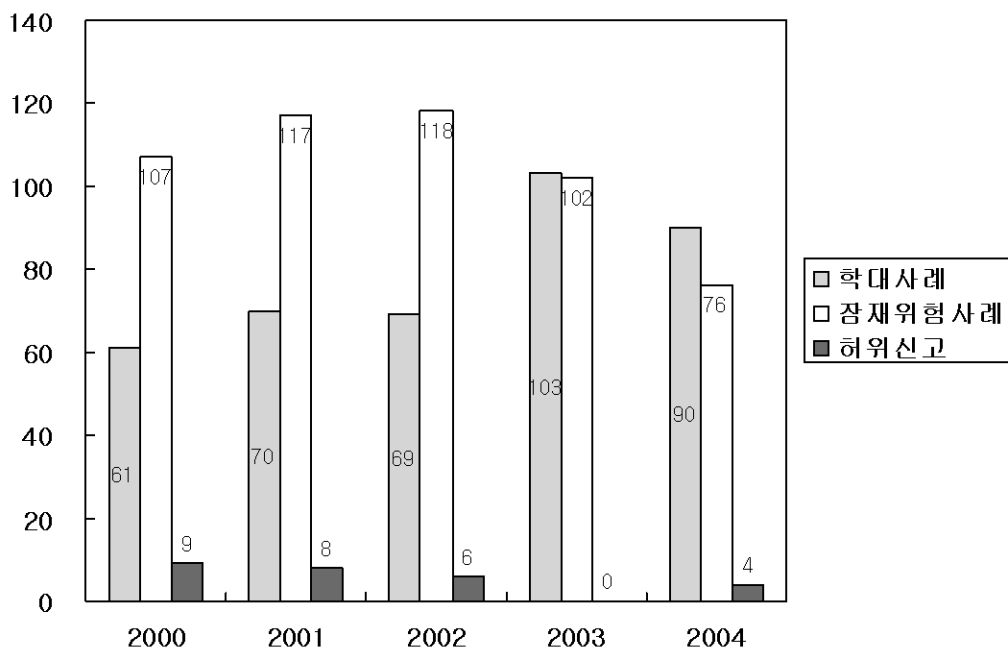
<사진17>진술녹화장비(PAVE)

싱가폴 아동학대 통계자료(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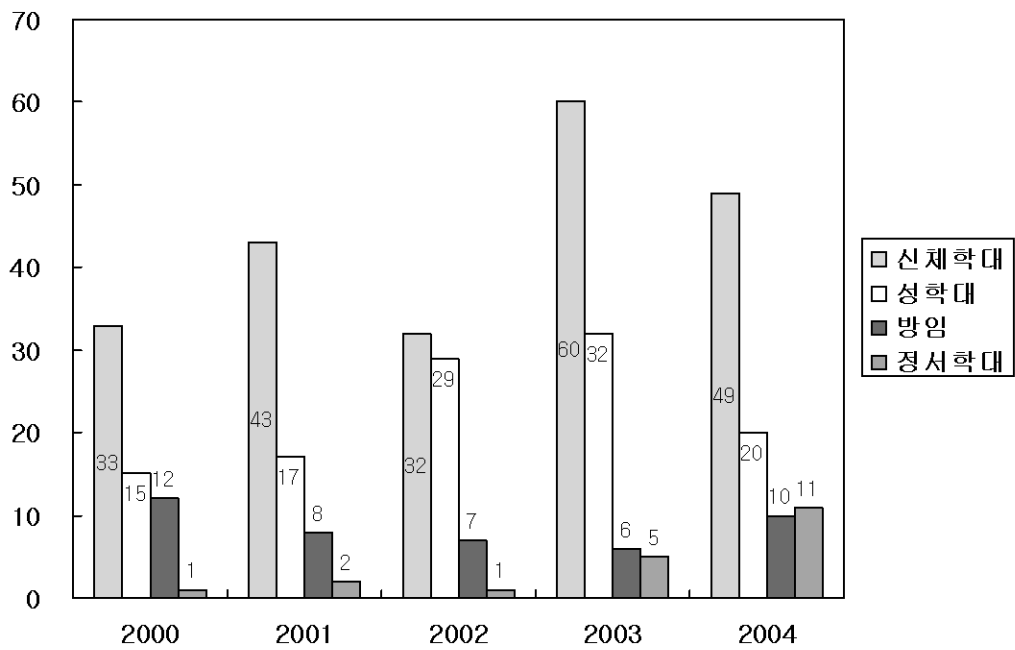
1. 아동보호(Child Protection Service) 상담 및 신고 건수(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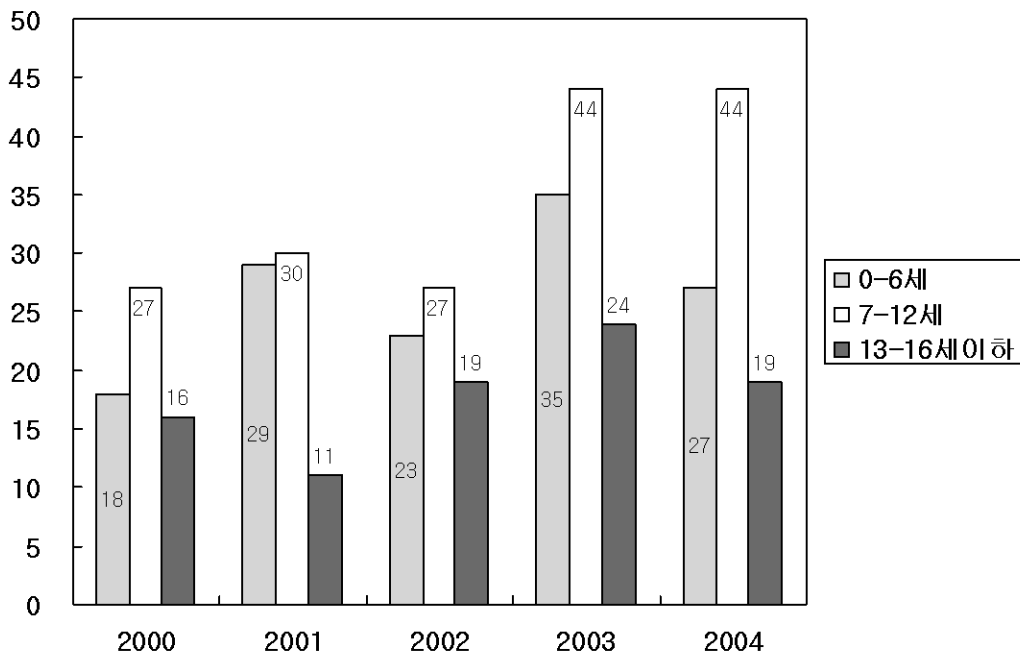
2.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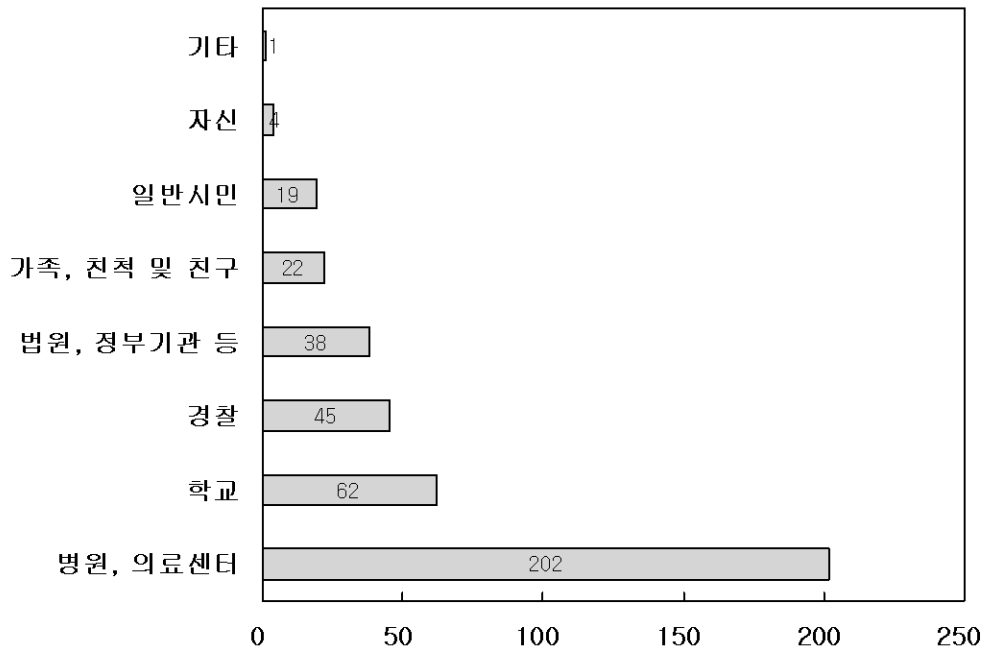
3. 학대유형(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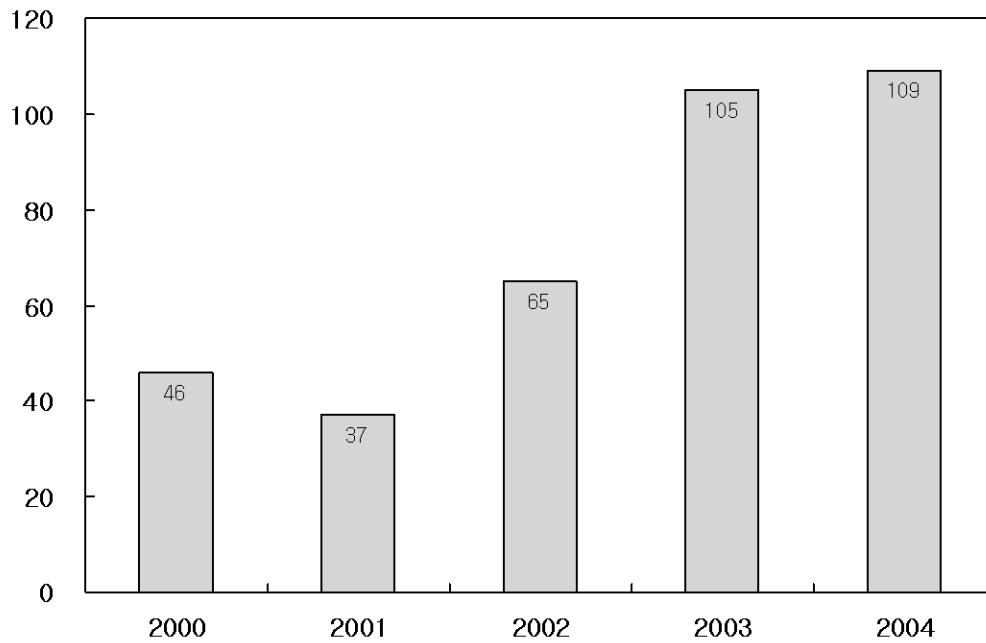
4. 학대피해아동 연령(200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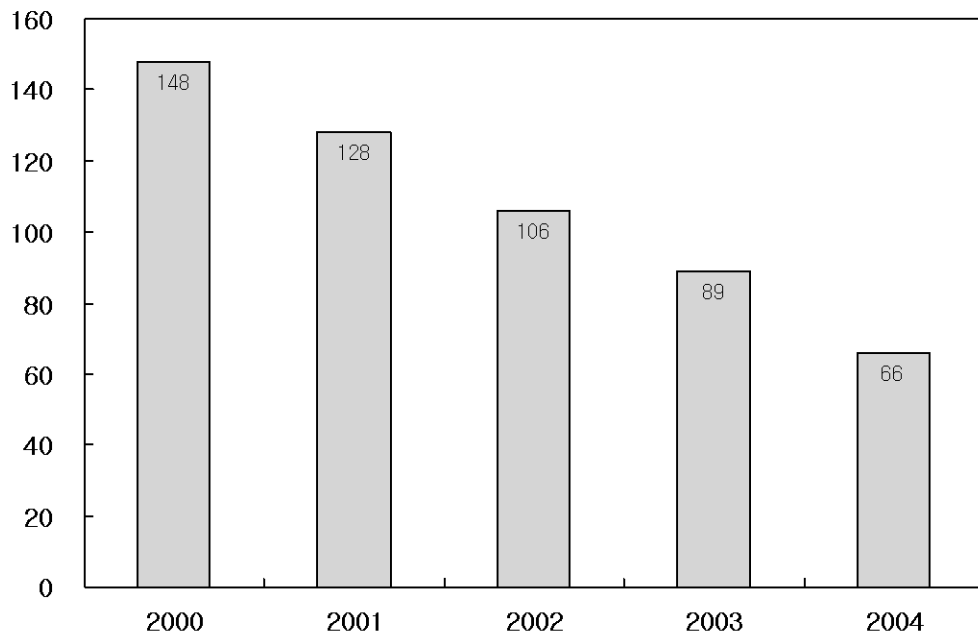
5. 상담신고 경로(Source of referral of cases)(2000-2004)



6. 신규 위탁보호 아동수(2000-2004)



7.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수(2000-2004)



(자료제공 : MCYS)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 민 승

타이페이, 싱가포르....

연수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곳 들이다.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지내온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는데 이번 연수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국에 대한 기대 반,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 반의 마음을 가지고 연수에 참가하였다.

우선 타이페이에 대한 느낌부터 말하자면, 일단 생각보다 크고, 넓은 곳이었다. 사람도 많고, 길도 복잡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겨서 익숙했다. 여성들의 자립지원과 상담 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Center 의 경우는 기금회에서 행했던 여러 홍보사업과 상담 사업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하고 있는 홍보사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113 핫라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129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방과 연결되어 일을 하고 있었다. CCF와 지방 법원의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한발 자국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다른 듯 하면서 비슷한 타이페이를 뒤로 하고 싱가포르로 향했다. 공항에 내려서는 우선 타이페이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에 놀랐고, 더운 날씨에 이곳이 싱가포르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돈되고,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싱가폴은 작은 나라여서 법을 만들거나, 조직· 관리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간기관이나 정부기관 모두 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시만큼이나 조직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조직과 법체계가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동학대 부분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 져야 피학대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요즘 들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고,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력낭비, 자원낭비로 이어져, 결국은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내가 타이페이와 싱가포르에 가서 느낀 것은 분리되어 있는 역할과 아동학대에 투입되는 공권력의 힘이다.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하는 업무와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업무에 맞게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법원의 강제 명령 등은 실제 효율성 정도를 바로 확인할 수 는 없었지만, 일단 설명을 들을 때만큼은 우리나라 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만들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수내용과 같이 이루어졌던 문화체험과 관광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나 혼자만 좋은 구경을 하는 것 같아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었지만, 연수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 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경 모

이번 해외연수는 나에게 있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게 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이나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점검하고 살펴봄으로써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부터 시작해 현장조사, 교육, 홍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상담, 부모상담 및 교육, 치료까지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업무의 분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개입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여 적절한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의 상담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의뢰하여 지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쯤 적용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지역적 한계나 문화적·환경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정리하여 초기개입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후관리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법원에서 소년부 관련 사건을 심리하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법원내에 상담실과 치료실 그리고 교육실까지 갖추고 처벌보다는 치료나 상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범죄와는 차별되게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참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법원,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개입과 협력을 통해서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경 미

생애 처음 해외에 발을 딛은 경험이자, 바쁜 직장생활에서 큰 전환점이며, 여유의 시간이기도 했던 해외연수. 낯설기도 했지만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만큼의 큰 배움과 깨달음을 준 값진 기회였다.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감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한 지 3년 5개월에 접어들었다. 사회생활의 첫 디딤터이면서 현재까지도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곳이다. 나에게겐 업무이지만 사실은 일로만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인 것 같다. 일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아동들은 그저 업무적인 감정과 시각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고통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늘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기관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에게만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여야 하며, 제도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믿음과 바램에 또다시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원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책임감과 동기로 상담원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며 일을 하고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학대예방사업 자체가 상담원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상담원이 아이들에게 그러해야 하듯, 우리나라도 상담원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국가와 제도였으면 한다. 이번 연수에 참가하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민간기관, 정부기관을 방문하면서 정부의 주도성과 민간 기관의 적극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이 많이 요구되는 조사와 아동 보호 조치에 대한 결정은 주로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었고, 민간기관은 아동의 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 교육·캠페인 등 학대예방 활동, 치료와 상담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수행에 법원이 두렵고, 멀리 있는 곳이 아닌 친근하고 가까운 곳으로 인식되게끔 잘 협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법적 체계와 구성은 다르지 않다고 보며,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주도적으로 다가가서 협력할 수 있도록 각 행정/교육기관의 인식개선에 앞장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전국의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다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사례에 접근하여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제5차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방문과 배움의 기회도 많았지만, 방문 국가의 경치와 생활방식, 음식, 문화 등을 골고루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 나라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기에는 짧았던 시간에 많은 것들 알려주고 보게 해 준 현지 가이드들이 있었기에 더 풍부한 연수가 되었을 것이고, 같은 일을 하는 동지들과 함께여서 더 큰 유대감으로 공감하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생을 두고 추억할 수 있는 뜻 깊은 경험과 고마운 사람들이 함께 한 이번 연수에 참가했던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간직할 것이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경 희

이번 해외연수는 나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다.

먼저 2000년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라는 이름으로 아동보호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 사업의 특성상 상담원의 소진이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나를 추스르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고 이러한 기회가 많은 상담원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동안 문헌 등을 통해 막연함으로 알고 있던 여러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머리 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조금 걷힌 것 같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새삼 실감되는 시간이었다.

4일여의 기관방문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부럽다'와 '우리가 참 무모하다'를 연신 느낀 시간

이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참으로 빠른 발전을 하였다며 스스로를 위안도 해보았지만 연신 쏟아지는 한숨과 탄성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는 법원이 클라이언트의 곁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모습은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그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 서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아동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일텐데.. 이러한 기본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허나, 부러워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귀중한 시간이었기에, 마음을 추스르고 대만과 싱가포르의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짚어 보기도 하였다.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사들의 오랜 근무경력과 여기에서 기인한 듯한 자신감.. 사례에 찌들어 피폐해져가는 나의 표정과 달리 너무도 밝은 그들의 모습은 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낮선 환경에서의 긴 일정 속에서 몸은 지쳤지만 머리와 가슴은 무엇으론가 채워진 듯하다.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본 현상이 아직은 남의 옷을 입은 듯 어색하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지만 곧 내 몸에 맞는 옷으로 교정하는 것이 앞으로 내게 주어진 과제이리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김 성 찬

대만, 싱가포르의 학대 피해아동 보호정책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해를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저는 공식 및 비공식 일정 전담 사진기사라는 보직을 임명받아 연구기간 내내 열심히 셔터를 누르고 다녔다. 셔터를 누르면서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느낌은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경제성장이 멈추었다, 회색빛, 우울하다 등의 느낌을 받았다.

대만에서의 공식일정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와 Hot Line 113(월드비전) 기관방문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의 분명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인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알 수 있었다.

둘째날 Taiwan Miaoli Distict Court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방법원의 역할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법원 시스템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특히 엄숙한 법원 환경을 아동친화적인 법원분위기를 조성,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 속에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Taiwan Fund Children and Families Miaoli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지역의 향토 음식과 친절한 안내에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배려와 위탁부모가 직접 기관에 나와 아동을 위탁하면서 느끼는 감동을 얘기하는 것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대만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고 약 4시간 동안 비행하여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매우 선진화되었고 도시 분위기는 깨끗하고

계획된 느낌이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그 규모가 매우 웅장하고 세계적인 공항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가이드의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싱가포르의 제도와 규칙 중 태형제도, 교육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전에 tv에서 본 싱가포르의 부동산정책 정부아파트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매우 작은 도시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속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동복지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기관으로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MCYS)와 비정부기관으로 Singapore Children's Society 를 방문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아동보호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만든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속도로 선진국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중앙정부, 언론 그리고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이 다녀왔다. 중앙정부에서는 선진국의 아동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책 및 제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언론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눈을 얻었을 것이며, 본 상담원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최우선의 원칙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한국암웨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연수가 되었다. 수고하신 연수 진행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외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박 미 언

● 나를 위한 반성

4년 동안 나는 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인식했던 것 같다. 신입직원 당시에는 현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 이외 다른 것을 시도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내 자신을 내면에 가둬 두려고 했던 것 같다.

우물속의 개구리는 외부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알지 못한다. 내부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바깥에 대한 변화를 알지 못하고 그 생활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제자리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종사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

● 연수 출발 일주일 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연수에 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남겨진 다른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과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한 설

레임과 일상생활을 벗어난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 출발!!

2007년 3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관광을 위한 사람,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위해 출장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동호보전문기관 종사자들.. 다들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 한국을 떠난다.

● 관련 기관 방문

대만과 싱가포르의 아동보호 체계는 우리나라와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역할분담과 지원체계가 우리와 다른 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향후 서비스 연계까지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거나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와 대만은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가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법적인 행정 지원까지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정부기관에서 직접 관련되어 업무처리가 되어 지다 보니 민간기관과 정부기관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가 잘 조직화 되어 있고, 앞서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부러워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해외연수팀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대견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늘 높은 것은 알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늘 높은 것은 알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냄새나는 흙과 가끔 그에게 손 내미는 두레박과 그리고 높은 하늘.. 개구리에게 있어 높은 하늘은 유일무이한 바깥 세상이다. 그만큼 그것에 대해 관심이 크다. 남들 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남들 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할 것이고 남들 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낼 것이다. 결국 개구리는 높은 하늘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 보다 전문가일 것이다.

10일간의 연수는 내가 있는 가정과 소속되어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하였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는 나의 방패막이 있어 즐겁다. 비록 현재의 삶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과도한 업무와 개입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게 본인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고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존재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나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들과 연수기간 동안 우물 안을 벗어나서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보고 경험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숨은 열정을 찾았고 자극을 받아 현재의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개구리가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박 수 봉

이번 연수는 도전과 휴식을 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아동보호사업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으며 우리가 배워야할 부분도 많았던 것 같다. 특히 대만 가정법원에서의 경험은 신선한 충격에 가까웠다. 건물 전체가 재판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조로 배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현관 입구에는 가정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었다. 소년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엔 마치 유치원을 연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판사가 높은 곳에 권위적인 자세로 재판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원형 탁자에 판사, 서기관, 아동, 부모 등이 모여 앉아 관련된 내용을 상호 주고 받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층의 직무실에는 직원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3층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아동들이 상담전문가와 곧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이 필요할 경우 법원까지 나가지 않고 상담실 모니터를 통해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보였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개입의 방향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판정이 신속하게 법원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해야 하는 일,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일, 가해자를 교육하는 일 등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민간 기관에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고 있다. 대만과 싱가포르의 민간 기관에서는 법원과 공조직에서 조사하고 판결한 사례에 대해 보호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동을 분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일을 민간 위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민간 기관이 학대행위자를 판정하고, 천륜기간이라는 부모와 자식을 격리하여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연수 기간 내내 이러한 상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공적인 조직에서 조사하고, 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간기관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아동보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 은 영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구문헌 등을 통해 외국의 아동학대 현황이나 법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한 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대만과 싱가포르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의미는 같지만 각 나라의 사회구조, 경제수준, 문화특성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입체계, 정부의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특히, 대만의 법원이 민간에 위탁하여 법원 내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치료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였으며, 소년보호법정은 아동들을 배려한 인테리어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시선을 끌었고, 마음에 많이 남았다.

싱가폴의 기관방문을 통해서도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학교와의 협력 하에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매우 눈에 띄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개입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학교가 피학대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품어보았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각 나라의 현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른 나라의 체계와 법제도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일선에서 피학대아동과 가해자,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한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의 발을 딛고, 우리의 눈을 맞추며 만나는 이 땅의 피학대아동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저항적이고 거부적인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삶을 지치게 만들지만 그 만큼 가치가 있고 생명력 있는 일임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애쓰며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상담원들이 열심히 일할 때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국가의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이 보다 빨리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풍토가 마련될 것을 믿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만세를 외쳐본다.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윤 여 복

1. 대만의 아동보호체계와 기관방문 소감

민간기관에서는 학대아동, 미혼모, 아동·소녀·여성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제격리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상해정도가 심한 학대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피해를 막기 위해 초·중학교에 1학기에 4시간씩의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학대예방을 위한 교재발간과 TV홍보 활동 등 예방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Miaoli 지방법원의 가정·소년법정은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놓았다. 법원이 무섭고 두려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여 조정과 회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마음이 들도록 인테리어와 사복차림의 판사와 원탁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Miaoli의 가정부조센터는 한 기관에서 입양과 가정위탁·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여성문제에 관한 서비스제공 등을 하고 있었다. 센터에 있는 쉼터에는 14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학대아동, 가출아동, 법원에서 개입해서 위탁받은 아동들이라고 한다. 쉼터에는 24명까지 입소가 가능하지만 아동이 많게 되면 관리가 소홀해 질것을 염려하여 18명까지만 수용한다고 함. 대만의 경우 국가가 위험한 상황은 직접 개입을 하고 법적인 분리도 하고 있었으며, 민간기관에서는 상담과 지원을 주로 하고 있었다.

2. 싱가포르 기관방문 소감

SCS는 학대와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고,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낳 동안 보호하고 있었으며, 아동과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주는 Tinkel Friend Help Line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교에 방문하여 방과후에 아동을 돌보는 CABIN도 운영하고 있었다. 상담전화에 대한 홍보는 각 학교에 방문하여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년4회 신문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VWSP는 아동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할 경우 아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3. 연수후기

대만과 싱가포르 두 나라 모두 정부와 민간기관이 업무를 분담하고 법적 장치가 잘 되어있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모든 것을 민간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법적 장치가 제도화되지 않아서 상담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학대행위자로부터 가해를 당하거나 위협적인 일을 겪을 때가 많다. 법적인 제도화가 우선되어 아동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피학대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한계를 느끼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국 암웨이 후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하게 되어 한국 암웨이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이 민 영

9박10일 동안 나의 빈자리가 행여나 사례진행이나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나를 보고 부소장님은 “네가 없어도 사무실은 잘 돌아간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겪어보고 오라셨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복지체계와는 많이 달라 관련 기관이나 NGO단체 등의 전반적인 업무나 체계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함께 한 참가자분들의 도움으로 체계나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각 사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다른 나라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경험과 배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새삼 깨달게 되었다.

‘미리 선진지의 기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처음 계획했던 데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배워 왔을 텐데...’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아쉬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경험을 하였고,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경험을 하였고, 앞으로 좀 더 나 자신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방문하였던 곳 중 기억에 남는 곳을 간단히 말하자면 대만의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는 치료실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상당수의 지역민이 함께 하는 걷기운동이나 기타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들(퍼포먼스, 일인 일편지 쓰기운동..)은 감동 있게 느껴졌다. 성매매청소년 및 부녀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동학대예방사업에도 적절하게 접목하여 대대적으로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World Vision Taiwan, Hot Line113은 우리나라의 129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129에 있는 상담원들이 한 번쯤은 기관방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Taiwan Miaoli District Court는 겉에서 보는 분위기와 달리 소년법정의 인테리어나 원탁으로 된 분위기가 좋았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Singapore Children's Society는 학교사회사업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개입단계가 아니라 그 전단계인 예방단계에서의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좋았던 것 같다. 이 기관에서 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세부적이진 않지만 간단한 내용을 알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의 경우 업무진행체계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다른 상담원들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적인 발전과 동시에 아동복지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연수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참가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해 선

암웨이 기업후원과 중앙의 치밀한 준비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식견을 넓히고 새로운 사업방향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1.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센터이다. 자체기금과 모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활동하는 NGO기관이다. 놀이치료와 상담이 중심이고 자활을 위한 카페도 운영하며, 예방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녀들의 성인식에는 매년 대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화관을 씌우며 축하한다고 한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나의 사례를 피해자, 가족, 가해자를 담당하는 3명의 사회복지사가 팀이 되어 서비스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2.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Prevention Committee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산하 내정부 소속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소속 위원회도 같은 사무공간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업무를 갖고 협력체계로서 일하고 있다. 같은 층에는 113Hotline과 입양사업을 위탁받아 일하는 2개의 NGO가 있다. Hotline에는 3교대로 24명의 사회복지사와 5개국 통역사 16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의 Hotline도 합리적인 소비자중심체제로 운영되기 위한 변화와 실험이 필요하다. 대만의 공공체계와 NGO의 협력은 동등한 전문체계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관계로 활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등한 목적과 동등한 전문인으로서의 협력체계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3. Taiwan Fund Children and Families Miaoli

Miaoli지역 CCF 가정보호센터이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남자청소년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아이들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숙식 외에, 각종 치료실, 집단활동실, 체육

실, 상담실 등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최신설비를 갖추었다. 치료사, 생활지도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팀으로 일하고 있다. 가족상담도 활발하고 입양과 가정위탁 사업의 역사도 오래되었다. 위탁가정을 방문하고 대리부모와 아이들도 만났다. 매우 자극이 되었다. 현장에 돌아가면 우리도 가정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기관과 좀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하고 싶다. Miaoli 지방법원도 방문하고 가정법정과 소년법정도 참관하였다. 판사들은 사회복지사와 보호관찰사의 협력으로 가정과 아동을 선도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서비스에 매우 적극적이고 만족해했다. 소년법정도 휴게실처럼 리모델링하여 사업의 목표를 최대한 실현하고 있었다.

4. Singapore Children's society

기업후원만으로 운영하는 NGO기관이다. 기업의 후원으로 충분하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초등학생을 위한 상담전화 Tinkle Friend를 운영하고 중학교는 학교현장에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로 성문제, 왕따, 학업 스트레스를 상담한다. 아동학대나 성폭력이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MCYS에 신고하고 사례를 이관한다. 아이들을 위한 홍보자료와 갖가지 홍보물이 매우 훌륭하여 부러웠다.

5.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싱가폴의 정부기관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처이다. 싱가포르 도시처럼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을 지원하는 공적체계가 명확하고 엄정하다. 아동학대는 경찰과 법원이 즉각 개입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되고 있다. 협력하는 각각의 NGO는 최대한 개성을 발휘하여 창조적으로 일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 용 배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에 임하며 이론적 배경이나 기술적 문제에 대해 여러 방면의 고민과 고찰을 하였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향인지에 관해서 주관적 사고만 하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의 모체가 되는 일본의 아동복지법이나 미국의 실리적인 법률과는 달리 동남아 특히 대만과 싱가포르 지역의 아동복지에 관해 여러해 전부터 고찰하고 확인하고픈 욕구가 강하였고 실제적인 아동학대의 개입방법과 조직체계, 법률에 관련된 기관을 알고 싶은 차에 해외연수의 기회가 와서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하고 8박 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녀오게 되었다.

우선 대만의 아동학대와 아동에 관련된 기관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적인 구조가 나아보였고 체계적인 접근, 분업화된 기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등은 배울만한 것이었고, 정부기관과 NGO단체 간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돋보였다. 더불어 현대적인 시설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하는 워커들을 보면 대만이라는 곳이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만큼 국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싱가폴은 복지와 관련된 기대를 많이 하고 방문을 하였고 역시 대만보다 더 나은 국가와 민간기관들의 네트워크,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보다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모금이나 기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자못 우리를 부끄

럽게 하였다.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엄하고 강하게 느껴졌으며 그 규모면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넓고 많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이나 싱가폴은 그 인구나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아동복지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와 NGO단체가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각 기관이 가진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함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예산이나 인력은 우리와 비교할 때 많지 않지만 투명한 예산집행과 기업이나 개인의 믿음과 기대가 대단했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정이 놀라웠다.

셋째, CCF나 민간기관들의 협력관계,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서비스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수로 얻은 것은 대만 싱가폴의 아동복지와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수한 기술과 기법, 법률관계, 상호협력관계 등 많은 것이었지만 역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독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소감문을 마칠까 한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최 윤 옥

대만과 싱가폴, 2개국을 동시에 방문해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체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연수를 신청하게 되었지만 정작 전날의 업무를 늦게까지 정리하고 일주일간의 공백에 다소 부담감을 느끼면서 나선 연수길이 그리 편하지 않은 못하였다.

공항에 도착해 동기 연수생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연수는 시작되지만 아동학대라는 힘든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동질감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맨 먼저 도착한 나라는 대만, 유교 문화권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동보호체계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The Garden of Hope Foundation / Dandelion Treatment Center를 시작으로 대만에서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으나 정부와 민간이 비교적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아동복지, 여성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만 방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틀째 일정한 Miaoli District Court 방문과 Miaoli CCF기관 방문이었다. Miaoli District Court는 엄숙하고 침울한 분위기의 우리나라의 법원의 모습과 달리 밝고 따뜻한 분위기여서 인상적이었다. 특히 소년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정은 원탁의 테이블에 온화한 분위기의 선생님 같은 판사가 나와 재판을 주재하고 있었고 피고로 보이는 소년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잘못에 대한 죄를 물으면서 아동인권을 최대한 존중한 대만 법원의 배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존중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오전 방문에 이은 오후 CCF기관방문은 돌아오는 길에서 까지 흡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

는데 그것은 바로 CCF 직원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오전 일정부터 오후 일정까지 에스코트해 주는 친절함 모습 뿐 아니라 기관의 이곳저곳을 열심히 설명해 주는 성실한 모습까지 감동이었다. 일정이 끝난 뒤 방문 기념사진을 일일이 코팅까지 해서 전달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더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회의 단순한 방문이긴 하지만 성심을 다해 준비한 그들의 배려에 다른 나라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 같은 것이 느껴져 돌아서 오는 버스에서 그들을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싱가포르, 대만에서의 쌀쌀한 기후와는 달리 꽤 따뜻한 날씨(?), 깨끗한 거리, 곳곳에 보이는 정원 같은 공원들, 대만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싱가폴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2곳의 방문이 있었는데 대만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에 힘쓰려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성학대 피해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상담실에서 법정과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피해 아동이 굳이 법정에 서지 않더라도 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랐다. 우리나라는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비디오 진술 녹화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싱가포르의 이러한 제도는 무척이나 부러운 제도 중의 하나였다.

싱가폴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인쇄, 제작물이었다. 기관에서 교육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전단지, 홍보물 하나도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에 나누어주는 전단지, 소식지에도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정도에 맞게 제작되어 추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연수는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 수준과 제도를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연수가 비교적 긴 일정에 이루어졌지만 돌아서니 좀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는 건 왜일지?

연수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아동복지에 관한 선진지 시찰에 대한 좋은 경험이었고 무엇보다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일정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로도 참 좋은 기회이고 경험이었다.

대만 아류해상공원의 여왕바위와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공원의 힘찬 물줄기를 다시 볼 날을 기약해 본다.



<사진18>인천공항에서(출발전)

Graphic version home | Text version home | 쿠키뉴스를 시작해오세요 2007.05.16 [수] 부산 17.2 °C 로그인 | 회원가입 | 독자로그 | 신문구독 | RSS

쿠키뉴스 쿠키TV 국민일보 MY쿠키 뉴스 생활 TV 스페셜 i-미션 국민일보전자신문 인포몰리자

통합검색 Searched by Paran BERRICH 전체기사 겨차서 오늘의 OT 교회마을 미산타인민문 영상실교

Home > I-mission > 전래뉴스

기자재

- 기자재
- 오늘을 행복하게
- 로딩나우
- 실과지혜

오늘의 QT

- 영상 QT
- 가정예매
- 역경의 열매
- 성경검색

교회마을

- 쿠키미션
- 지역교회 소식
- 목회/신학

미산타인민문

- CCM/공연/미술
- 출판/영화

가톨릭TV

- 영상실교
- 영상실교 안내
- 영상실교 신청
- 은혜받은 실교

- 가톨릭 매직
- 내게 쓰여진...

3개국 기독교 NGO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힘 합친다

[2007.05.15 17:29] [나라면 이렇게 쓴다](#) [화대](#) [속소](#)



타이베이의 대만월드비전을 방문한 국내 NGO 관계자들이 스크린을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의 피학아동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NGO들의 공조는 국가별 관습으로 인한 다른 제도와 그에 따른 감정 및 취약점을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 전 한국을 방문했다는 대만 미아올리 지방법원 창수예편 가정법정장(판사)은 “한국의 민간 주도적 아동 보호 및 가정폭력 보호 시스템에 놀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남아동보호기관의 박미연 사회복지사는 “공조체제만 완비된다면 한국의 피학 아동 및 가정폭력 희생자 보호 프로그램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며 “민관 요원이 한 공간에서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동행한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관리팀의 고은정 주무관도 “이번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됐다”며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아동보호기관의 이민영 사회복지사는 “미아올리 지방법원의 가정법정이 마치 놀이 공간처럼 안전하게 꾸며져 있고 원탁 테이블이 설치돼 피고로 출두한 청소년에게도 평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을 전했다.

국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상담 및 복지 요원들의 해외 연수 및 교류 사업에는 한국 암웨이사가 1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두 한국암웨이 사회공헌부장은 “올 상반기 200여명의 대만-싱가포르 시찰단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아올리 싱가포르=윤재석 논설위원

[나라면 이렇게 리스트](#) [댓글](#) [나라면 이렇게 쓴다](#)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인가뉴스

- “목숨 달았는데...” 중국, ...
- “귀신잡는 해병”유래시킨 장...
- 1만여 마리 벌떼 도심 레스...
- JMS 정명식, 중에서 체포...
- 성매매 일선 전단지 아르바...
- 아차하면 ‘젓빛 노후’...수심...
- 이승업, 일주일만에 멀리 ...
- 전북도 5급이상 퇴출제 도입
- [남북철마 연결 기대효과 ...
- [KUKI뉴스] 학교에서 당구...

아들 185cm 딸 168cm 키워보자...
[키] 무료상담신청하면 3가지 선물
도래 친구보다 평균 10cm 작을때!
S... **대제 내뿜으로 표현하자!!**
7일동안 -7kg 급속감량 프로그램...
평상 47kg으로 사는 그녀의 비법!!

쿠키특목

대학교 대학 TV
타미간 '간' 도
독? 잡아라!

- 대한민국 군인도 '300' 용사
- 가족과 대화 30분 미만?

· 내학생 내주문 “낯설게 친해”
· CNN부시 사망! 자막 사고

시사 스포츠 연예 생활

- 소현아파트 슬럼프상 뚜렷
- 청약가점제 어떻게 바뀌나
- UCC업로드 시대3MB 5초면 끝!
- 제주 항공편 하늘의 별따기
- 아파트값 소폭상승 전국평균 0.2%

Special Edition

[그림이 있는 마블]
고향의 여름

- [메세미-신해경] 선블
- [사실] 선진국에 너무 뒤쳐진 한국
- [문화산책-최머지] 축제를 위하여

I 국민일보 전자신문

특별기획 2007년 1분기 100대 인물
서울대, 복제선임 실용화

2007.05.16 17:29

國際司法交流

韓國兒童保護局參訪苗栗地院

【本刊苗栗訊】韓國國家兒童保護局局長李浩均女士 (Director Lee, Ho Kyoon) 於日前率各社福機構社工一行30餘人，參訪苗栗地院，對於我國處理家暴及兒童少年保護事件實務，交換經驗，主客雙方均受益良多。

蔡燭燉院長親自接待並致歡迎詞，接著由少家庭張淑芬庭長、李麗萍法官、張永全主任觀護人引導參觀少年及家事法庭、育嬰室、觀護人辦公室、縣府駐法院家暴服務處等，訪客對各項完善而溫馨的設施，均留下深刻的印象。

隨後，張庭長主持座談，會中訪問團成員提出有關家暴處理流程、性侵犯加害人之處遇，被害人安置保護作業、夫



▲韓國國家兒童保護局李浩均局長 (右四) 率領的參訪團與張淑芬庭長 (右五) 及少家庭成員合影留念。

妻離婚之監護權、兒少犯罪如何執行親職教育等問題，張庭長及李法官均詳加說明，與會貴賓個個動作筆記，如獲至寶。李局長一行，咸認苗栗地院能積極連結社政機關、醫療院所、社福機構、民間社團，努力推動少家業務，是值得韓國借重的寶貴經驗。

韓兒保團訪家扶 學寄養經驗

【記者胡蓬生／竹南報導】韓國健康福利部及韓國各地兒童保護中心主管20多人，昨天下午到竹南參訪苗栗家扶中心，了解我國寄養服務、兒童保護及輔導工作，作為借鏡。韓國和台灣在很多方面競爭，但兒保工作，台灣走在前面。

參訪團在社工人員帶領下，到各樓層逐一參觀家扶中心的運動場、中途之家 (宜保學園)、兒童少年身心創傷復原中心 (彩虹屋) 等，並針對推動寄養家庭遇

到的種種問題，進行座談，參訪團並到鎮上兩戶寄養家庭拜訪。

苗栗家扶社工督導湯鳳琴指出，家扶中心目前有40多戶寄養家庭，收容的寄養兒童和少年有48人，韓國參訪人員對台灣成功推動寄養家庭感到很好奇，因為在韓國推動困難，他們很想了解台灣的經驗。

她指出，韓國在2000年設置24小時兒童保護專線，但各地號碼並不一樣，今年統一設為「1391」，如同台灣的「113」專線。

參訪家扶、兒保業務 96.02.21 C3 苗栗新聞

韓國社工 效法苗栗經驗

韓國、檳榔嶼、苗栗報導

韓國中央兒童保護專門機關所長李好均，昨天率領韓國健康福利部及韓國各地兒童保護中心主管20多人，昨天下午到竹南參訪苗栗家扶中心，了解我國寄養服務、兒童保護及輔導工作，作為借鏡。韓國和台灣在很多方面競爭，但兒保工作，台灣走在前面。

參訪團在社工人員帶領下，到各樓層逐一參觀家扶中心的運動場、中途之家 (宜保學園)、兒童少年身心創傷復原中心 (彩虹屋) 等，並針對推動寄養家庭遇到的種種問題，進行座談，參訪團並到鎮上兩戶寄養家庭拜訪。

苗栗家扶社工督導湯鳳琴指出，家扶中心目前有40多戶寄養家庭，收容的寄養兒童和少年有48人，韓國參訪人員對台灣成功推動寄養家庭感到很好奇，因為在韓國推動困難，他們很想了解台灣的經驗。

她指出，韓國在2000年設置24小時兒童保護專線，但各地號碼並不一樣，今年統一設為「1391」，如同台灣的「113」專線。

參訪團在會議室與法院代表交換意見，他們對我國處理家暴暴力、性侵害等案件，由法官與律師進行庭前調解，再由法官裁決，少年家事法庭法官李麗萍、主任觀護人張永全等，引導參訪團參觀少年及家事法庭、觀護室、育嬰室等。

協助安排此次參訪的家扶中心督導湯鳳琴表示，韓國目前在處理家暴、兒童少年保護的問題才逐漸整合，有由來建立法律制度，希望藉來參訪團吸收經驗。

李好均等人的問題，包括法的處理家暴暴力處理流程、法官會採取的強制命令，由什麼機構執行家事相對人，性侵害受害者對警的處遇，被害人安置保護等。及未來韓國電子及兒童權利問題，還有青少年犯罪後，如何執行親職教育及過失犯罪行為等。

訪問團對法院同時結合社政機構、警察、民間團體等，提出對人是有利的滿意，表示肯定，認為值得作為韓國參考。

一行下午由輔道竹南參訪家扶中心，了解韓國在安置保護兒童、少年的作法，及現行寄養家庭制度等。李好均表示，此行受益良多，返國後將與社政機構進行討論，參考台灣寶貴經驗。

家扶中心主任謝淑芬指出，韓國96年前才成立國家兒童保護中心，及設置輔導專線，負責處理兒童虐待及兒童保護等案件。目前家扶中心設有兒童輔導中途之家、寄養家庭及心理諮詢輔導等，方面取得相當落實。去年國家社基會評比為全國第一，所以韓國健康福利部和兒童保護中心特組成22人的訪問團，昨天下午到鎮中心參訪。

在苗栗家扶人員引導解說下，韓國參訪人員參觀了育嬰室、心理諮詢室、交談廳、觀護所等設施。也了解我國如何保護受虐兒童，辦理施虐家長強制親職教育等，這些對參訪團的家長說明如何對社會國家等。參訪人員表示，獲得不少見聞，將的運動作業等回國轉達參考。

台灣兒童暨家庭扶助基金會苗栗分事務所剪報資料

剪報日期: 96年2月21日
 剪報地點: 苗栗縣政府
 剪報人員: 李麗萍
 剪報內容: 韓國參訪團參訪家扶中心
 剪報用途: 新聞報導

<방문단 기사 - 대만 현지신문>